

碩士學位論文

우리나라 學校音樂教育課程의 研究

指導教授 李 椿 起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音樂教育專攻

鄭 美 蘭

2006年 8月

우리나라 學校音樂教育課程의 研究

指導教授 李 椿 起

이 論文을 教育學碩士學位論文으로 提出함.

2006年 6月 日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音樂教育專攻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提出者 鄭美蘭 LIBRARY

鄭美蘭의 教育學 碩士學位論文을 認准함.

2006年 7月 日

審査委員長 _____ 印

審査委員 _____ 印

審査委員 _____ 印

우리나라 學校音樂教育課程의 研究

鄭美蘭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音樂教育專攻
指導教授 李 椿 起

본 연구는 학교음악교육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알아봄으로써 학교음악교육환경에 대한 성찰과, 학생과 교사, 그리고 교과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며, 시대적 변화에 맞춰 학생들에게 적합한 음악교육의 발전 방향은 무엇인지 해결책을 찾는 데에 의의를 두었다.

우리나라 교육과정은 ‘국가 수준 교육과정 유일체제’인 중앙집권형 교육과정 체제를 유지하여 왔으며, 학교교육에서 설계도 역할을 담당하였던 것은 ‘교과서’로 완벽한 ‘교과서 중심 학교교육 체제’가 유지되어 왔다. 즉 교과서로 교육한 것이 아니라 교과서를 교육한 것으로, 교과서 중심 교육체제는 교사가 교육의 설계와 운영에서 교육전문가로서 담당하여야 할 전문적인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만들어버렸다. 제6차 교육과정부터 학생 교육의 실행 주체인 일선학교가 직접 편성·운영하는 ‘학교 교육과정’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고, 이러한 분권형 교육과정 체제에 의거하여 교과서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학교 교육과정에 의거하여 교과서로 교육하는 이른바 ‘교육과정 중심 학교교육 체제’가 열리게 되었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교육부, 시·도교육청, 단위 학교의 역할분담 체제에 지역 교육청의 역할을 추가함으로써 학교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을 보다 강화하였다. 그러나 교과서 지식 전달에 전념하였던 현장 교원들이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권을 바르게 인식하여 전문적으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며, 입시 위주의 교육현실, 학교교육 여건, 교원의 정원과 전문적 자질, 사무관리 위주의 학교문화, 학부모의 왜곡된 교육관 등의 문제가 개선되지 않은 교육여건 속에서 학교 교육과정의 편성·운영의 정착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오늘날 음악교육은 매스컴의 상업적 감각주의와 즉흥적 감상주의에 고유의 역할을 빼앗기고 단지 형식적인 교과목의 하나로 존재할 위기에 처해 있다. 현 음악교육의 과제는 산업발달이나 과학만능주의의 팽배로 인한 정신의 빈곤, 예술적 심미안의 결여, 예술 체험의 결핍 등을 들 수 있으며, 우리 정서는 학교 음악교육을 통해 보다 체계화하고, 정신세계에 대한 확고한 가치관을 정립시키는 것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여 음악교육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전환을 모색해야 할 때이다. 지금까지의 음악교육은 주로 연주에 중점을 둔 제한적인 교육이었다면 새로운 시대에 빠른 변화와 경쟁은 우리의 문화적 가치와 예술에 대한 개념, 그리고 사회와의 연관성에 대해 재조명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학생의 음악적 능력은 교사의 음악에 대한 가치관에 의해서 좌우되어 교사의 미적 이념을 소유하게 되고, 이는 학생 자신의 인격 형성과 음악에 대한 인식에 중요한 방향을 결정한다고 볼 수 있다.

즉 교육의 실패는 결국 교사의 책임이며 누가 가르치느냐에 따라 교육은 달라진다. 미래의 젊은이들에게는 창의적이며 독창적인 것이 중요하며 이들에게 독창적으로 생각하게 하고, 결정과 혁신의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교사의 임무이다. 과거에 비해 현재는 가정이나 사회에서 훨씬 더 많은 음악을 접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미래에 더욱 확산될 것이며, 학교는 가정에서 채워줄 수 없는 사회에서의 기능을 채워주는 곳으로 남아있어야 한다. 학교교육의 책임이 전적으로 교사에게 있음을 상기할 때 음악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포함시키자 하면 교사는 음악과 교육과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교과서를 따라가는 교육이 아닌 교육과정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학생 수준에 맞는 독창적인 교육과정 편성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하며, 끊임없이 변하는 학생과 사회구조 속에서 지속적인 재교육의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교사들의 연구와 노력만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고, 교육인적자원부가 예술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정책적으로 지원할 때에만 가능한 일이며, 지식 위주의 교과들을 통한 삶의 세계 추구만으로는 인간교육이 완성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한편, 음악 교과가 예술 교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예술 체험 중심의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준비해야 하고, 교육의 내용과 방법에 관한 장기적인 연구를 지원하며, 교사들을 지속적으로 재교육해야 할 것이다.



※ 본 논문은 2006년 8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임.

目 次

I.	序 論	-----	1
II.	教育課程의 變化		
	1. 우리나라 教育課程의 變化	-----	3
	2. 우리나라의 音樂歷史	-----	5
	3. 우리나라 音樂科 教育課程의 變化	-----	9
	4. 제7차 音樂科 教育課程	-----	11
	5. 世界 音樂 公教育의 歷史	-----	12
III.	音樂教科의 教育的 理解		
	1. 學校 音樂教育의 目的	-----	21
	2. 音樂科 教育課程의 構成	-----	22
	3. 音樂科 教授·學習 資料 및 方法	-----	28
	4. 音樂教科와 學習 評價	-----	32
IV.	學校音樂教育의 問題點과 代案 摸索		
	1. 우리나라 音樂教育의 現實	-----	37
	2. 音樂教育의 새로운 代案	-----	41
	3. 音樂教師 再教育의 基本 方向	-----	48
V.	結 論	-----	51
	參 考 文 獻	-----	54
	Abstract	-----	56
	附 錄	-----	59

표 목 차

표 1. 국가수준교육과정의 변천 -----	4
표 2. 음악과 내용영역체제의 변화표 -----	26



I. 序 論

우리나라의 교육은 산업화와 더불어 과학기술교육을 중시하여 음악교육은 단지 전인교육의 구색을 맞추기 위한 의무적인 학습활동에 치우침으로써 학생들의 음악교육은 학교외적 환경에 내맡기고 일부 교육학자들은 청소년들이 대중음악을 즐겨듣고 이를 행동으로 표현하는 모습을 들어, 사춘기의 필연적인 과정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교육은 각 개인의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개발함과 더불어 사회의 개선에 관심을 가져야한다.¹⁾

오늘날음악교육은 TV나 매스컴의 상업적 감각주의와 즉흥적 감상주의에 고유의 역할을 빼앗기고 단지 형식적인 교과목의 하나로 존재할 위기에 처해있다. 현 음악교육의 과제는 산업 발달이나 과학 만능주의적 발상의 팽배로 인한 정신의 빈곤, 예술적 심미안의 결여, 예술 체험의 결핍 등을 들 수 있으며, 한국인의 정서는 학교 음악교육을 통해 보다 체계화하고, 그들의 정신세계에 대한 확고한 가치관을 정립시키는 작업이 어느 때 보다도 필요하여 음악교육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전환을 모색해야할 것이다.

우리나라 학교 음악교육은 해방 이후 정규 교과로 가르친 지 몇 십 년이 되었고, 시대가 변하면 학교교육도 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지만 급변하는 사회에서 학교교육은 과연 잘 맞추어서 변하고 있는지 우리는 학교 음악교육의 미래를 조망해야할 시점에 와 있으며 학교 음악교육의 발전상을 점검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학교 교육과정은 학교장과 교사가 합의하여 선택·결정한 학교교육의 실질적인 기본 설계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학교교육은 학교에 적합하게 준비된 그 학교의 독특한 교육과정에 의거하여 계획적, 조직적, 의도적으로 실천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학교교육은 교육과정보다는 행정기관의 교육시책, 중점사업, 공문서 등에 더 강한 규제와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학교교

1) 남정걸(1993), 「교육조직행위론」, 교육과학사. p.182.

육과정은 학교의 자율적 선택과 결정에 의하여 자생적, 전문적으로 마련되지만, 교육시책은 타율적인 지시와 압력의 성격을 띠고 상부 기관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하달된다. 교육과정은 학습자의 요구와 필요에 근거를 두고 학문적, 사회·문화적, 개인적 적합성을 확보해야 하지만, 교육시책은 정치, 경제, 사회의 요구나 행정 책임자의 일시적인 관심, 의지, 취향 등을 더 중시한다. 교육과정은 다양성, 창의성, 자발성을 중시하지만, 교육시책은 획일성, 능률성, 강제성을 더 중시한다. 교육과정은 수많은 관련 전문가의 학문적, 장기적인 합의·선택이지만, 교육시책은 소수 정책 담당자의 일방적, 행정적, 유행적, 단기적인 결정이 되기 쉽다. 이처럼 상이한 두 가지의 존재 중 지금까지 학교교육을 강하게 지배하여 온 것은 교육과정이 아니라 교육시책이었음을 알 수 있으며 우리 학교교육의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현재까지 우리 교육은 7차까지의 교육과정을 거쳐 변화해 왔으며 그에 따라 음악과 교육과정도 변화해 왔다. 학교음악 교육과정의 문제점을 알아봄으로써 학교음악 교육환경에 대한 성찰과, 학생과 교사, 그리고 교과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며, 시대적 변화에 맞춰 학생들에게 적합한 음악교육의 발전방향은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Ⅱ. 敎育課程의 變化

1. 우리나라 敎育課程의 變化

우리나라 敎育과정은 기초능력 배양을 주력하는 미군정하의 교수요목시기(1945~1954), 우리나라 敎育의 현실에 입각하여 점진적이고 진보적인 교과敎育과정 강조의 시기(1954~1963), 급변하는 사회에 적응하고 실생활에 문제해결 능력을 기르며 자주성·생산성·유용성을 강조한 생활 중심 강조의 시기(1963~1973), 학문 중심을 지향하여 지식의 취득을 敎育과정의 목적으로 한 학문중심 敎育과정 강조의 시기(1973~1981), 지식의 급격한 팽창과 고도 산업화·정보화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국제관계의 다양한 변화에 주체적 대응과 조국의 평화통일을 주도하면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기 위해 1987년 제5차 敎育과정으로 개정하고, 이어서 1992년 제6차 敎育과정을 개정하여 언제나 변천하는 사회에 적응하여 새로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세계화·정보화·산업화에 대처할 수 있는 인간중심敎育과정으로 변천하였다. 지금은 제7차 敎育과정(1997.12.30 개정공포)이 실시되어 국제화 시대의 학교敎育이 지향할 핵심적인 이상과 목표는 인간이 존중될 수 있는 모든 제도적 장치와 여건이 마련된 '인간적인 학교'를 만들자는 것으로 인간적인 학교는 한 줄로 세우는 敎育이 아니라, 공존공영의 敎育이 실현될 수 있는 학교를 만드는 일이다.

우리나라 敎育과정사를 표1)에서 정리해보면, 1차부터 제5차까지는 '국가수준 敎育과정유일체제'인 중앙집권형 敎育과정 체제를 유지하여 왔으며, 그 시대에 학교敎育에서 설계도 역할을 담당하였던 것은 '교과서'로 완벽한 '교과서중심 학교 敎育 체제'가 유지되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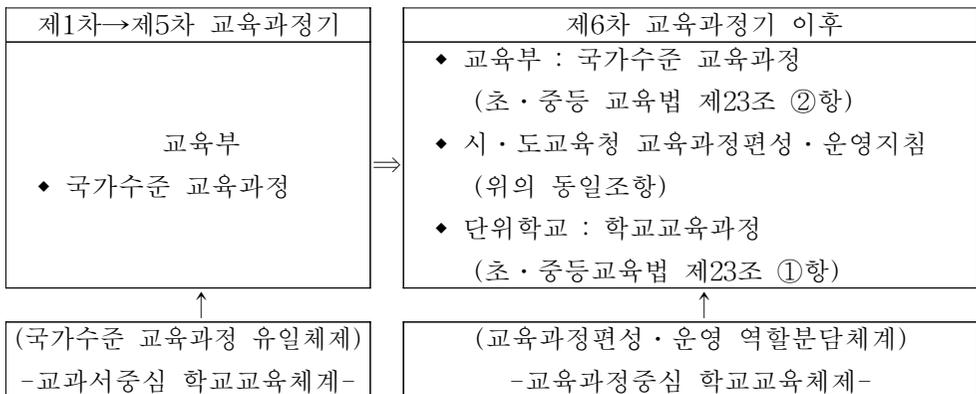
교과서로 敎育한 것이 아니라 교과서를 敎育한 것으로, 학교가 '敎育과정'을 편성·운영한 것이 아니고, '교과서'를 사용·전달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체제 속에서는 敎育의 주체인 敎育자가 敎育의 자료인 교과서의 전도사가 되

어 버렸고, 교과서 중심 교육체제는 교사가 교육의 설계와 운영에서 교육전문가로서 담당하여야할 전문적인 역할과 기능을 전혀 수행할 수 없게 만들어 버렸다.

제6차 교육과정부터 비로소 교육과정의 선택 결정에 교육부, 시·도교육청, 단위 학교가 각각의 역할과 기능에 맞게 관여하고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학생교육의 실행 주체인 일선 학교가 직접 편성·운영하는 ‘학교교육과정’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고, 이러한 분권형 교육과정 체제에 의거하여 1995학년도부터 각 학교마다 ‘학교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이 처음으로 의무화되어 교과서는 더 이상 학교교육을 완벽하게 지배할 수 없게 되었고, 새로이 ‘학교교육과정’이 그 학교의 교육 기본 설계도로서 제자리를 잡고 학교교육을 지배하는 시대를 열게 되었다. 즉, 교과서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학교교육과정에 의거하여 교과서로 교육하는 이른바 ‘교육과정중심학교교육체제’가 열리게 되었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교육부, 시·도교육청, 단위 학교의 역할 분담 체제에 지역 교육청의 역할을 추가함으로써 학교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을 보다 강화하였다. 그러나 교과서 지식 전달에 전념하였던 현장 교원들이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권을 바르게 인식하여 전문적으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더구나 입시 위주의 교육현실, 학교교육 여건, 교원의 정원과 전문적 자질, 사무관리 위주의 학교문화, 학부모의 왜곡된 교육관 등의 문제가 개선되지 않은 교육여건 속에서 학교교육과정의 편성·운영의 정착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표1. 국가수준교육과정의 변천



자료 : 함수곤(2005), ‘교과서 제도 변천’ 특별기획, 한국교과서연구재단, p.12.

2. 우리나라의 音樂歷史

우리나라는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형식적인 음악교육은 없었고, 다만 전수형식을 빌어서 국악을 가르쳤다. 신라시대에는 ‘음성서’라는 왕립 음악기관이 있었고, 백제의 미마지는 중국의 오나라에서 탈춤을 배워와 ‘기악무’로 발전시켰으며, 고려시대에는 중국에서 소개된 속악인 ‘당악’과 궁중음악인 ‘아악’ 우리 고유의 속악인 ‘향악’의 세 장르가 있었으며 당시의 음악은 연주 중심이었다.

1) 조선시대의 음악교육

○ 제1기 (태조-성종: 1392~1494)

음악이론체계의 성립기로 세종대왕과 박연을 중심으로 음악이론이 체계화되었으며 우리나라 고유 기보법인 정간보가 완성되었다.

○ 제2기 (연산군-영조: 1495~1776)

중국의 영향에서 벗어나 우리 음악으로의 토착화 과정기로 중국음악 풍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음악적 개혁이 활발했으며 민속악이 등장하고 판소리 등의 새로운 음악 장르가 선보이기 시작했다.

○ 제3기 (정조-고종: 1777~1907)

다양한 장르의 음악 연주가 풍요로웠던 연주의 황금기라고 할 수 있으며 악기를 곡에 맞추는 대신, 곡을 악기에 맞추는 통일된 조율법을 사용하였다. 민속악에도 가곡, 가사, 잡가, 산조 등의 다양한 장르의 음악이 생겼다.

조선 말기를 전후하여 발생한 갑오개혁(1894)²⁾을 계기로 서양문화가 수입되었고 학교를 통한 음악교육을 가능하게 하였다.

2) 갑오개혁: 고종31년 개화파 정권이 문물제도를 근대적인 방식에 의해 실시한 것.

주요골자 ① 대정조약 전면 폐기 ② 개국기원연호 채택 ③ 관제 개혁
④ 국왕이하 종실의 칭호 개칭 ⑤ 지방제도의 개정 ⑥ 사회계급 타파
⑦ 과거제도 폐지 ⑧ 세제 개정 등이다.

2) 개화기의 음악교육

갑신정변³⁾이 일어난 1884년부터 한일합방이 체결된 1910년의 음악교육으로, 고종 23년에 ‘육영공원’을 설립하여 새 학문을 교육시키기로 함에 따라 아펜젤러(Henry G. Appenzeller)와 언더우드(Horace G. Underwood)선교사들이 세운 배재(1886), 이화학당(1886), 경신학교(1886) 등에서 찬송가가 최초로 교육되었다.

교회를 중심으로 한 찬송가 교육은 1894년에 언더우드가 ‘찬양가’라는 제목으로 117장의 찬송가 4성 악보를 5선 악보에 출판된 최초의 문헌이 되었고, 1900년대에 서양식 군악대가 창설되었으며, 1901년에 에케르트(Franz Eckert)에 의하여 본격적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특히 에케르트 지도하의 군악대는 당시, 황실의 대소 행사에 참여하는 한편, 과고다공원을 중심으로 민족의 음악교육에 커다란 공적을 끼쳤다.⁴⁾

1910년에는 음악용 도서가 최초로 간행되었으며, 조선정악전습소(朝鮮正樂傳習所)의 후속인 조양구락부(朝陽俱樂部)가 창설되어 서구식 음악교육을 담당하였다.

선교사들에 의해서 유입된 서양음악은 기존의 한국 전통음악이 뿌리 깊은 음악천시 풍조에 밀려 겨우 명맥을 유지하던 것에 비해 새로운 서구 문물의 유입과 더불어 빠르게 전파되었다. 이러한 서구음악의 확산은 하나님 앞에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는 민주주의 의식을 일깨웠고 특히, 일제식민치하에 항거하려는 민족적 자각의식을 일으키는 원동력이 되었다.⁵⁾

3) 일제치하의 민족주의 음악교육

1910년을 전후한 민족의 교육은 사학의 개화사상과 교육구국 운동으로 커다란 실효를 거두게 되었다. 사학의 민족주의 교육은 신교육의 일대 전환기였으며, 일제 식민지 정책에 대항하는 도구로서 신교육을 통한 개화 노력밖에는 없다고 느꼈다.

3) 1884년(고종 21) 김옥균(金玉均)을 비롯한 급진개화파가 개화사상을 바탕으로 조선의 자주독립과 근대화를 목표로 일으킨 정변.

4) 장사훈(1974), 「여명의 동서음악」, 보진재, p.172.

5) 송진범(1977), “한국의 민족주의 사상이 음악교육에 미친 영향”,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교육대학원, p.20.

따라서 민족의 지도자들은 서둘러 학교를 세우고 그들에게 민족 보존의 이념을 강하게 부각시키는 한편, 인재 양성에 전력을 기울이게 되었고, 민족적 대의에 따라 도산 안창호는 1907년 평양에 대성학교를 세우고 무실(務實), 역행(力行), 충의(忠義), 용감(勇敢), 자강(自強), 충실(充實), 근면(勤勉)의 7대 정신을 표방하며 교육이념으로 승화시켰다.⁶⁾ 또한, 그는 매일 조회에서 애국가를 부르게 하였고, 민족의식의 고취를 중요시하여, 노래를 지어 학생들에게 부르게 하였다.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 오늘날 서로 만나보니,
반가운 날이 많은 중에, 나라 생각 더욱 많구나.⁷⁾

도산 안창호는 조국광복을 위해서는 오직 교육을 통한 인재양성에 있다고 믿고 실천함으로써, 근대 한국민족교육의 선구자로 인식되어 왔으며, 그는 첫째, 투철한 역사의식의 소유자이며 둘째, 탁월한 실력과 품격을 지닌 교사이며, 셋째, 풍부한 교육학적 견식과 학문적 독창성을 갖춘 교육자로 평가되고 있다.⁸⁾ 또한, 그는 민족주의교육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많은 창가를 만들어 부르게 하였다.

1900년을 전후한 수많은 애국·독립운동가들이 민족의 정신을 일깨우고 개화에 대한 열망을 노래한 것이라면, 1910년을 전후한 민족적 창가들은 일제에 대한 노골적인 저항과 독립을 위한 전투적 내용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이들 곡들의 선율적 특징을 살펴보면 대체로 3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 우리 민족 고유의 5음 음계를 사용한 4·4조의 민요조 혹은 타령조의 멜로디. 둘째, 기독교의 찬송가나 서양의 민요에서 따온 7·5조, 8·5조의 멜로디. 셋째, 일본의 군가와 유사한 왜색적인 멜로디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은 개화기 한국의 역사적 상황에 비추어 지극히 당연한 사실들이라 할 수 있다.

일본강점시대⁹⁾에는 창가¹⁰⁾라는 과목으로 음악을 가르쳤으나, 서양의 민요나

6) 차석기(1978), 「한국 민족주의 교육의 연구」, 진명문화사, p.137.

7) 주요한(1947), 「도산 안창호」, 대성문화사, p.84.

8) 김인회 외(1977), 「교육이란 무엇인가」, 실학사, p.237.

9) 한일합방이 이루어진 후 민족교육에 대한 일제의 탄압은 더 노골화, 구체화되었다.

사학에 대한 일본인교사 채용을 의무화시키는 한편, 한국에 관한 역사, 지리, 한국어교과서의 금지는 물론, 기본 한국교육의 민족적 색채를 발휘하던 운동회, 창가 등에 이르기까지 간섭하였다. 이로 인해 합방 이전에 2,000여교에 달하던 사립학교는 합방 후에는

일본의 노래가 주요 교과 내용이었고, 성격상 황국시민의 자세를 강요한 식민지 정책 일환의 교육이었다. 하지만 유치원에서만은 우리 노래가 우리말로 활발하게 불려졌으므로 당시 유치원은 민족교육의 최후 보루였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되고 있다.

4) 군정기 및 교수요목기(1945. 8. ~ 1954. 4.)

1945년 일본의 항복 이후 미군정하의 음악교육이 시작되었다. Rockard, Earl N. 대위를 중심으로 한국의 오천석을 비롯한 교육계 지도자 7인으로 한국교육위원회(The Korean Committee on Education)를 구성, ‘일반명령제4호’를 발표하여 초등학교와 중등학교(중. 고등학교)의 개학을 지시하였고, 군정청 학무국은 ‘신조선의 조선인을 위한 교육방침’을 시달하여 ‘한국어로 교육, 조선의 국익에 반대되는 교과목의 교수 금지’를 지시하였다. 당시, 음악교육은 일본강점시대의 내용을 모방하였으며, 음악에 조예가 깊은 교사들이 등사본을 만들어, 노래 부르기 교육을 주로 실시하였고, 음악은 필수교과였지만 음악 교과서가 없어 교육내용과 체계가 빈약했다.



5) 교육과정기의 음악교육(1954. 4. ~ 현재)

1945년 12월 20일에 초등학교 1학년에서 6학년까지 음악 교과서 편수가 끝났으며 본격적인 음악교육 체제가 시작되었으나, 6.25를 겪게 되었고, 전후 1954년 4월 20일 ‘문교부령 35호’로 교과서의 제작은 시작되었다. 1957년 초등학교 1, 2, 3학년 교과서가 출간되었으며, 58년에 4, 5, 6학년의 교과서가 출간되었고, 같은 해 교사용 1, 2, 3학년 교과서가 출간되어 교육과정기 음악교육의 장이 열렸다.

일반, 기독교계를 합쳐 1,467개 교로 감소하여 불과 8개월 동안에 600여 개의 사립학교가 폐쇄되었다.

10) 처음은 우리나라 가사에 서양 악곡을 붙여 노래 부른 것으로, 기독교가 전파되기 시작한 1886년경부터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 후, 1904년 최남선의 ‘경부철도가’가 나오면서 창가의 형태는 찬송가 스타일에서 일반적 의미의 형태로 다변화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문헌상으로 확실한 언급이 없고 다만, 1900년 이후 황성신문 등에서 활자화되고 있으므로 찬송가가 아닌 창가의 의미는 1900년을 전후하여 시작된다고 추정할 수 있다.

3. 우리나라 音樂科教育課程의 變化

우리나라의 음악과교육과정은 1955년8월 제1차 교육과정이 공포된 이래, 1997년 제7차까지 여섯 차례의 개정이 있었고, 각각의 교육과정은 4년에서 11년 정도의 기간을 주기로 개정되어왔다.

○ 제1차 교육과정(1954. 4.~1963. 2.)

‘교과중심교육과정시기’로 음악교육에서는 체제 정비 기간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음악의 체험을 통하여 아름다운 정서와 인격을 갖춘 사회인으로 교양과 애국애족의 정신을 기르는 것에 목표를 두었고, 음악을 생활화하도록 하는데 주력하였다. 내용 영역에 ‘노래 부르기’ ‘기악 연주’ ‘음악기초 이론’과 ‘창작’이 편제되어 있었으나, ‘가창’이 주된 내용이었다.

○ 제2차 교육과정(1963. 2.~1973. 2.)

‘경험중심교육과정시기’로 경험중심의 교육이론을 바탕으로 음악을 가창, 기악, 창작, 감상, 영역으로 분류하여 지도 내용을 좀 더 구체화하였으며, 전반적으로 음악에 관한 지식의 이해와 음악활동에 필요한 기능 연마에 더 중점을 두었다.

○ 제3차 교육과정(1973. 2.~1981.12)

‘경제적 도약기’에 해당하는 음악교육으로, 국민적 교양과 기초적인 능력, 태도 등을 발전시키는데 기본 목표를 두고 교육과정에 있어서 음악성, 창조성, 음악요소 등 새로운 개념이 도입되었다. 당시 학문중심 교육사조가 전 교과에 걸쳐 주를 이루었음으로 음악에 있어서도 음악의 기본적인 지식과 원리를 이해하며 체계적인 음악교육을 제시하였다.

○ 제4차 교육과정(1981.12.~1987. 3.)

교과중심 교육과정의 ‘교과체계 조직 방식’과 경험중심 교육과정의 ‘경험 중시 경향’, 학문중심 교육과정에서 ‘지도 내용의 구조화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수용해야한다는 교육이론이 대두되고, 인간중심의 교육과 미래에 대응하는 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던 시기에 제정된 것으로 음악과교육과정도 당시의 동향에 맞춰 창의적인 음악활동을 지향하였다.

○ 제5차 교육과정(1987. 3.~1992. 6.)

바람직한 음악의 체험을 통하여 음악성을 개발하고 풍부한 정서와 창조성을 길러 조화로운 인격을 형성하게 하는 것을 기본 목표로 하고 있으나, 구조적인 파악과 음악 구성 원리에 대한 학습이 강조된 ‘개념학습 중심의 교육과정’이므로 음악성과 창조성 개발보다 이론 중심의 학습으로 치중되는 경향이 있다¹¹⁾고 반성하고 있다.

○ 제6차 교육과정(1992. 6.~1997.12.)

다양한 음악활동을 통하여 음악성을 개발하고 창의적인 표현 능력과 감상 능력을 기르며 풍부한 정서를 함양하게 하는 데에 목표를 두고 있으며, 제5차 교육과정과 비교하여 보면 음악 본질적인 목적에 더 중점을 두었다.

○ 제7차 교육과정(1997.12.~현재)

인간적인 학교의 건설을 기본 목표로 음악이 실제 생활에서 지닌 역할과 가치를 강조하고 학생들에게 음악적 생활을 더 풍요롭게 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

11) 김용만 외 (1987), 「중학교 음악교육과정 해설」, 문교부, P.133.

4. 제7차 音樂科 教育課程

제7차 교육과정은 다양한 악곡과 음악활동을 통하여 음악성과 창의성을 기르고, 풍부한 음악적 감수성과 바람직한 가치관을 기르는데 중점을 두며, 다양한 시대와 문화권의 음악을 듣고, 연주하며, 생활속에서 음악의 역할과 가치를 이해하여 음악을 생활화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개정된 '음악과 생활'은 초등학교는 2000년, 중학교는 2001년, 고등학교는 2002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 일반 선택과목 중 하나다. 즉 고등학교 1학년까지는 국민공통 기본 교과인 음악을 10년 간 배우고, 고등학교 2, 3학년은 이 과목을 선택한다. 그러므로 기본적으로 음악교과와 연계돼 심화된 내용을 중심으로 학습이 진행된다.

■ 제7차 교육과정에서 신설된 '음악과 생활'교과의 중점 내용

첫째, 음악과 생활은 학습자 중심의 교육과정 정신이 구현된 과목이다.

둘째, 음악과 생활의 학습 내용은 이전 10년 간 음악의 학습 내용과 연계성을 가지며 보다 심화된 내용이 되도록 한다.

셋째, 다양한 음악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음악성과 창의성이 발전되도록 한다.

넷째, 음악이 실제 생활속에서 지닌 '역할과 가치'를 강조하고, 학생들의 음악적 생활을 보다 풍성하게 하도록 한다.

'음악과 생활'에서 음악의 구성 요소 자체를 학습목표로 강조하지 않지만, 모든 수업활동에서 기초적인 내용으로 반영하게 된다. 그러나 입시 위주의 교육풍토로 고등학교에서 음악교육 시수의 격감 추세와 음악교사에 대한 교육체계의 미흡함으로 그리 밝지 않은 음악교육 현실을 맞이하고 있는 형편이다. '음악과 생활'이라는 새로운 과목의 도입에 있어서 선택과목의 학습은 1차적으로 학생의 선택여부에 달려 있지만, 학생들이 음악에 관심을 갖고 음악을 선택하여 학습하게 하기 위해서는 음악교사뿐만 아니라 음악교육과 관련된 주변의 모든 기관과 관계자들이 함께 준비해야 하며, 음악교육의 정상화를 통한 학생들의 바른 정서함양이야말로 음악교육의 가장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다.

5. 世界音樂 公教育의 歷史

음악과가 학교의 공식교과로 인정된 1838년부터 1920년대까지의 학교에서의 음악수업은 노래 부르기, 악보 읽기에 그쳤으며, 1930년경부터 1950년까지는 가창, 기악, 창작, 감상의 4영역으로 경험 제공에 불과하였고, 1960년경부터 1980년 중반까지는 음악의 기능과 개념, 원리 이해, 창의적 활동을 중히 여기는 포괄적 음악교육이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1980년 후반부터 포괄적 음악교육에 미적탐구가 추가된 새로운 형태의 심미적 음악교육이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그것은 음악이 기능 및 지식 습득과 이해만으로 음악적 교육이 완료될 수 없음을 인식하기 시작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음악교육은 인간의 조화로운 발달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그리스와 고대의 음악교육, 그리고 미국 및 현대의 음악교육사조에 부응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현대사회는 공교육의 음악교육이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음악적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하여서 바람직한 인간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요구한다. 그것은 음악교과가 노래만을 가르치는 교과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로 하여금 노래 부르기를 포함하여 여러 가지 음악적 활동을 통해서 심미적 체험을 하기를 바라며 그러한 체험을 통하여 음악적인 능력을 습득하고 음악적인 심성을 개발함으로써, 정서적으로나 인간적으로 풍요롭고 여유로움을 줄 수 있다.

1) 근대 유럽의 음악교육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여러 형태의 학제를 통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으나, 음악교육에 관한 한 몇 가지 공통되는 사항들이 있다.

첫째, 콘설바토리(conservatory)¹²⁾가설치되면서 길드제도의 음악교육은

12) 음악의 교육·훈련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로 국립·공립·사립 등 여러 형태가 있으며, 건반악기·관악기·현악기·타악기·이론·작곡·음악학 등의 과목을 일부의 과정으로 나누어 교육하는 경우가 많다.

콘설바토리에서 흡수하였고, 대중의 음악교육보다는 음악 연주에 뛰어난 전문가를 기르는 쪽으로 발전하였다. 이러한 전통은 오늘날에도 계승되어 음악의 연주 전문가는 콘설바토리를 통하여 배출된다.

둘째, 대학의 교육은 중세의 7예과가 그대로 대학의 교과과정으로 흡수되었고, 음악은 대학의 정규 과목이 되었으나, 음악을 다분히 순수 학문적 차원에서 다루게 되었다. 이러한 전통은 유럽의 대학에서 음악의 최고 학위는 학문적 연구와 철학적 분야에 한하여 주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여러 형태의 교회학교(Parochial School)들이 계속 생겨나며, 학생들의 일반적인 음악능력의 신장과 그러한 능력을 예배에 사용하는 목적으로 음악을 교육하였다.

넷째, 교회학교와 더불어 유럽의 각 지역에서는 공공교육기관이 설립되었고, 선택과목으로 음악을 교육하게 되었다. 그러나 선택과목으로서 음악을 교육함에 따라 초등학교의 음악교육이 가장 보편적으로 음악의 가치와 음악적 인식에 기여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헝가리와 구소련을 비롯한 몇 개국에서 모든 학생을 위한 음악교육이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은, Zoltan Kodaly¹³⁾와 같은 음악 교육자의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가 빚어낸 예외적인 현상이라 볼 수 있다.

(1) 독일의 음악교육

프로이센학교제도 법안에 따른 음악교육으로, 페스탈로치의 교육적 사고를 신봉하고 음악교육의 방법에 적용하였다. 1811년에 전문 음악연주자 양성을 위한 The Musikakademie Hochschule für Musik가 비엔나에 설립되었다. 그러나 주지주의적 교육사조의 영향(1820-1870년대)으로 음악교육이 침체되기도 했다.

독일 음악교육자 협의회와 음악교육 결의안은 다음과 같이 독일 음악교육의 바탕을 제시하였다.

13) (1882~1967), 헝가리의 작곡가. 음악교육가. 민족음악가. 지휘자로 헝가리의 민족음악을 연구하고 이를 음악교육에 적용하여 코다이교수법을 만들었다. 이는 민요를 이용한 합창교육으로 음악을 읽고, 쓰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음악적 능력 향상과 함께 지적 발달과 정서적인 발전을 도모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 헝가리에서는 1942년을 코다이의 해로 선포했다.

- 일상 생활을 위한 것이므로 음악을 반드시 가르쳐야한다.
- 독일 ‘노래 부르기’ 교육은 독일민요를 가르쳐야한다.
- 음악기술을 초등학교에서부터 가르쳐야한다.
- 뛰어난 교사를 육성하여 음악교육을 하여야한다.

학교 급별에 따라 독일에서는 일반 초등학교(Allgemeine Elementarschule), 일반 도시학교(Allgemeine Stadtchule), 그리고 김나지움 (Gymnasium)¹⁴⁾에서 ‘노래 부르기’ 과목으로 음악을 가르쳤다.

1920년 이후 음악교육의 생활화를 범국민적으로 추진하였고, 그 결과 민중음악 교육론과 실용주의적 입장에 근거한 노작교육사상¹⁵⁾이 음악교육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음악교육의 학문적 연구 역시 수행되어, 학교 음악교육은 점차 창작, 기악, 감상, 가창, 음악이론을 중심으로 지도하게 되었으며, 오늘날의 음악교육 체계의 기반을 제시하게 되었다. 독일은 음악교육이 인간의 완성을 위한 필수적 요소라는 입장을 견지하여, 현대 음악교육의 내용적 틀을 제시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14) 원래 고대 그리이스의 체육학교를 일컫는 말로, 현재는 스포츠나 체조를 위해 만들어진 빌딩, 혹은 공간을 말한다. 그러나 현대유럽의 여러 나라 특히, 독일과 같은 나라에서는 중·고등학교를 일컫는 말로 8~9년제로 되어있다.

15) 일의 교육적 가치를 가르치는 교육과정.

결과보다는 과정이 중요. 노작교육의 3가지성격. 첫째, 인간경험의 성장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육체적 활동으로 다른 교육과정에 비해 개방적이며 내용이 다양하다.

둘째, 인간경험과 성장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육체적 활동이지만, 일차적으로 사회에서의 삶의 양식을 어느 정도 반영하면서 작업을 통해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활동이다. 셋째, 학습자에게 일정한 절차나 기술에 익숙하게 하면서도 여전히 개인적인 변용이나 집단창작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교육이다.

(2) 프랑스의 음악교육

중세 이후부터 19세기까지 프랑스의 교육은 교회와 승려에게 맡겨져 있었고, 1784년에 유럽에서 최초의 전문 음악교육 기관인 Paris Conservatory가 설립되었다. 1791년에 헌법의회는 새로운 교육제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교회의 영지와 승려의 해산을 명하고, 교육법안을 제정하여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각 군과 면의 중심지에 두고, 전문학교는 각 군정도의 중심지에, 그리고 학사원은 파리에 두는 것을 명시화하였으나, 음악은 이들 학교의 교과목에 포함되지 않았다. 1830년 왕정복고시대는 혁명에 의해 종말을 고하고, 필립 (Louis Philipe)이 즉위한 이후 '1833년 6월 28일의 법률'에서 고등학교의 교과 중 '음악'이 '창가'라는 명칭으로 포함되었다.

'음악교육의 목적은 어떤 정해진 수의 가창곡을 외우는데 있다.' 라고 주장한 측과 '음악교육의 목적은 개인의 음악적 재능을 조장하는데 있다.' 라는 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대립되었다. 1851년부터 사범학교에 있어서도 창가가 필수로 가르치게 되어, 초등학교 음악교육을 위한 기초가 확립되게 되었다. 1881년 초등교육에 대한 무상교육이 통과되자 음악이 교과목으로 포함되었고, 이는 1887년의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상. 중. 하 로 나누어 교육하도록 하였고, 고등학교의 교육과정도 제시되어 음악이 각과 공히 교과목으로 포함되었다.

고정도법의 창시자 보퀼롱(G. L. Bocquillon 1781~1842), 음의 말을 창안하여 쉽게 노래 부를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한 다넬 (L. A. J. Danel 1787~1875)과 민요교육에 힘쓴 부쇼르(M. Bouchor) 등이 프랑스의 음악교육에 공헌한 음악교육자들이며 이들의 노력과 연구에 의하여 프랑스의 음악교육의 위상을 유지했다.

(3) 영국의 음악교육

영국은 일요학교 및 유아학교에서 음악을 종교적 목적으로 가르쳤다. 이는 1780년경에 Robert Raikes에 의하여 시작된 운동으로, 약50만 명이상의 어린이들이 일요학교(Sunday School)에 다녔고, '노래 부르기' 교육이 행하여 졌다.

1800년 중엽, 초등학교 표준교과에 음악이 포함되었고, 노동운동가 Robert Owen에 의한 유아학교운동(Infant School Movement) 역시, 영국 음악교육의 중

요한 매체가 되어 어린이들의 도덕적, 종교적 감정을 눈뜨게 하기 위한 이 운동에서 찬송가, 무도회용 음악, 유아들의 발진 단계에 부응하는 즐거운 음악들이 폭넓게 다루어졌다.

18세기 이후 영국의 보통학교에서 음악은 그 교육적 가치가 널리 인식되어 필수교과의 하나로써 취급되었다. 1800년대 중엽의 영국의 주요교과로는 읽기, 산수, 쓰기, 지리, 역사, 음악, 미술이 포함되었고, 1822년에 영국의 왕립음악원(Royal Academy of Music)이 설립되었다. 존 헐러(John Pyke Hullah : 1812-1884)에 의해 1849년에 발간된 'Method of Teaching Singing'은 영국의 음악교육이 어느 정도 수준이었는지 가늠케 해주는 음악교육 방법론이다.

1870년 이후 '지방시험제도'를 두어 음악교사들이 이 시험을 치러 음악기술 향상에 공헌하였다. 특히 프랭크 헤이워드(Franck H. Hayward)박사는 1910년에 학교 음악교육에서 감상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해 각 학제에 알맞은 교육내용을 지시하였다. 1956년도에 영국 문교부가 공시한 유. 초. 중등 및 주니어 음악학교의 음악과 지도요령은 다음과 같다.

① 유치원의 음악 지도

- 심신의 발달단계를 고려하여 형식적이 아닌, 되도록 자유롭게 지도한다.
- 가창 교재는 아동들이 이미 알고 있는 전통적인 것을 선택하여, 반주악기를 쓰지 않고 지도한다.
- 가창이 서투른 아동들도 음악을 매우 좋아하는 아동들이 많으므로, 되도록 노래 부르게 하면서 그 원인을 지적하여 교정할 필요가 있으며, 멜로디 악기를 준다.
- 간단한 음표를 지도한다.
- 어린이의 음악청취 능력을 고려하여, 비교적 짧은 클래식을 반복해서 청취시킨다.

② 소학교의 음악 지도

- 학습에 변화를 갖게 하면서, 서서히 기능을 향상시켜 간다.
- 합창, 합주와 동시에, 혼자서도 노래하고 연주하는 습관을 기르게 한다.
- 과외 음악활동을 중시하여 합창단, 합주단을 조직하고, 지도강사를 초빙하여 지도한다.
- 악기보다도 교사의 범창(範唱)에 의해 가창시킨다.
- 교재로서는 민요를 많이 사용한다.
- 찬송가나 기타 가창곡을 어린이에 맞게 적절히 이조(移調)하여 가르친다.
- 가창이 서투른 어린이를 따로 취급하지 말고, 힘써 노래 부르도록 배려하고 간단한 악기를 가지게 한다.
- 악보의 지식은 실제에 맞게 가르치고, 이론 편중이 되지 않도록 한다.
- 시창 연습은 규칙적으로 되풀이한다.
- 시창 연습에는 명곡의 선율을 사용한다.
- 시창 연습에서는 1음씩이 아니라, 프레이즈로서 읽도록 한다.
- C장조는 유건(有鍵)악기로 가장 연주하기 쉬운 조이지만, 이것은 C장조가 시창으로 쉽다는 것은 아니다. (시창 연습은 C장조로 국한해서는 안 된다.)
- 가창 교재와 시창 교재는 일단 별개로 생각해야하며 가창 교재를 적절히 시창 교재로 활용하는 것은 좋다.
- 악기를 연주하는 어린이는 시창력이 뛰어나다. 악기로서는 리코더(영국의 피리)가 적당하지만, 상황에 따라 바이올린, 첼로, 목관, 금관을 덧붙여도 좋다.
- 기악 지도에서나 가창 지도에서나 창조적 학습으로 할 수가 있다.
- 연극이나 오페레타에서 이미 알고 있는 것을 교재를 사용하여 만들어본다.
- 자작의 멜로디를 테이프 레코더로 감상한다.
- 지역 사회의 축제일에 학습한 음악을 이용한다.
- 좋은 연주를 음악회, 라디오, 레코드 등으로 청취한다.
- 학교에 있어서의 음악 지도는 어린이들의 음악생활의 일부이므로 교사는 어린이들이 학교 이외에서 듣는 음악에 관심을 갖고, 이에 대하여 항상 어린이들과 대화를 나누어 선도할 필요가 있다.

③ 특수학교(지체부자유자를 위한)의 음악지도

- 가창을 중심으로 하여, 되도록 음악을 부담 없이 즐기게 한다.
- 때때로 간이 악기를 쓴다.
- 난청아(難聽兒)에게도 가창. 춤을 훈련의 일부로 실시하고, 자기표현을 한다..
- 정박아(精薄兒)에게도 음악을 지도하고, 정신적 안정을 도모한다.
음악 클래스의 지도(지역 학교에서 우수한 학생을 모아 조직한다)
-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으로 나눈다.
- 각 센터에 모아 지도한다.
(매주 수회. 단 교통 등의 관계로 주 1회, 때로는 학기마다 모여서 행한다)
- 여름방학, 학기말 휴가를 이용하여 합숙 연습을 한다.
- 1년에 1회, 또는 한 학기에 1회 음악회를 개최한다.

영국의 경우 특수학교(지체부자유자 및 우수학생)의 음악교육의 필요성이 이미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다는 점에서 음악교육의 폭이 광범위하고 상세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독일의 음악교육을 모델로 삼은 영국이지만, 영국의 음악교육은 인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측면과, 전인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음악교육을 수행하였다.

(4) 미국의 음악교육

오늘날 음악교육의 최대 영향력을 갖고 있는 나라는 미국으로 현 미국의 음악교육이 있기까지는 수많은 음악교육자와 단체들의 노력이 있었다. 신대륙에 도착한 청교도들이 음악교육의 필요성을 접한 것은 그들의 기억속의 찬송가가 점차 사라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1640년경에 신대륙 최초의 노래책인 'The Bay Psalm Book'이 출판되었다. 그러나 본격적인 미국의 음악교육은 Singing School 운동이 효시가 된다. 이는 교회의 찬송가를 제대로 부르기 위한 운동으로 사교육적인 성격을 띠고 있고, 유럽에서 음악교육을 제대로 받은 master들이 농한기를 이용하여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며 노래에 관심이 있는 그룹을 대상으로 악보 보는 법, 노래하는 방법 등을 지도하였다.

1717년에 최초의 Singing School이 보스턴에 설립되었고, 1809년에 Joseph Naef가 페스탈로치 이념에 기초한 초등학교를 설립하였다. ‘음악교수지침서’가 1834년에 보스턴음악학교에서 발행되어 미국 음악교육의 중요한 자료가 되었다. 1838년 로웰메이슨¹⁶⁾이 보스턴의 교육국을 설득하여 최초로 공교육에 음악교과가 설립되었다. ‘음악적 재능은 특별한 재능이기 때문에 모든 어린이에게 음악을 가르치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이에 대하여 메이슨은 ‘음악교육은 누구에게나 필요하다’는 음악교육의 대중화를 주장했다. 1839년에 주립 교사 양성학교가 매사추세츠의 렉싱턴에 설립되었다. 1840년에 전국적으로 음악학교가 조직되기 시작했고, 음악교육학, 화성학, 지휘법, 성악, 기악 등이 교육되었으며, 제1회全美음악회의가 개최되었다.

남북전쟁 이후 전쟁을 통한 음악의 위력과 필요성을 심각하게 느낀 결과, 학교 교육에 음악을 교과로 포함하는 풍조가 팽배했다. 윌 이어하트(Will Earhart)는 인디애나주 리치몬드에서 음악감상 교과와 관현악을 신설했고, Frances Clark도 유사한 학과를 아이오와주의 오타와에서 개설하였다. 1865년에 미국 최초의 음악전문학교인 오벌린 콘서바토리(Oberlin Conservatory)가 전문 음악인을 교육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최초의 체계적인 지도법은 페스탈로치의 교육방법으로 실음을 기호에 우선하여 교육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1900년 이후 음정, 음계의 엄격한 훈련식 지도법에서 탈피하여 어린이의 발달 단계에 맞는 방법으로 변환되었다. 인간능력의 개발이 음악교육의 목적으로 확대되며, 미국의 음악교육은 ‘대중교육과 개인교육의 병행, 음악환경의 확대, 음악기술 습득의 자유, 지도목표와 방법의 탄력성, 지도 내용의 다양성: 감상지도, 독보지도, 가창지도, 리듬 반응, 기악지도, 창조성의 육성, 협력성의 장려, 다른 교과와의 관련성 강조’와 같은 특색을 띠게 되었다.

16) 1770-1772년에 미국음악교육의 발전을 위한 목적아래 유럽의 주요 도시를 방문하고, 페스탈로치에 의해서 설립된 학교에서 음악이 어떻게 가르쳐지는가를 관찰하여 보고서를 미연방의회에 제출하였으며, 유럽 방문 결과 페스탈로치교육의 효과성에 대한 확신을 바탕으로 페스탈로치음악교육(The Pestalozzion Music Teacher, 1837)을 저술하였다.

1907년 MENC (Music Educators National Conference)의 창립과 함께, 교사 교육, 음악교육 내용 및 방법론에 대한 연구와 자체 질적 관리가 전 미국을 통틀어 협회 차원에서 이루어졌고, 이를 통한 음악교육의 필요성, 방법, 음악교사 교육, 교육 내용 등에 대한 포괄적인 발전이 있게 되었다. 1.2차 세계대전 후 경제 공황과 교육의 대변혁을 겪으며, 음악교육사에 획기적인 Contemporary Music Project(1957), Yale Seminar(1963), Tanglewood Symposium (1967), The Goals and Objective Project (1969) 등이 이루어진다.

미국의 음악교육은 이러한 프로젝트들을 통하여 음악 교육철학, 내용, 방법, 체제 등을 탄탄하게 구축하였고, 1995년에 들어 국가성취기준(Achievement Standards in Arts)을 제정하는 등 찬송가를 바르게 부르기 위해 시작되었던 미국의 음악교육은 세계 음악교육 모델의 위상을 확립하게 되었다.



Ⅲ. 音樂敎科의 敎育的 理解

1. 學校音樂敎育의 目的

학생들의 사회화에 목적을 두었으나, 근·현대 음악교육은 음악교육의 직접적 실용성과 더불어 미적 판단을 길러 ‘감성’(感性)교육 차원의 음악교육이 강하게 제기되어, 음악을 가르치는 것은 음악을 통해서 보다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려는 것이다.

사회화와 감성교육은 서로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음악 교육적 처방을 통해서도 융화될 수 있다. 질 높은 삶을 이루기 위해 학생들의 긍정적 사회화가 필요하며, 아무리 좋은 인성이라 하더라도 사회화가 고려되지 않으면 효용가치가 없는 것이다. 인간은 개인으로서만이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 더불어 자아실현을 이루는 존재이기 때문에 음악교육에서 의도하는 사회화는 무비판적으로 기성사회에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사회를 주체적으로 가꾸는 가치지향적인 것이어야 한다.

고도로 발달된 현대사회에서의 음악교육의 필요성은 더욱 절실하다. ‘삶을 위한 기술의 습득, 개개인의 주체성의 구축, 창조성의 계발이 공교육의 근본인 바, 음악을 통하여 이 모든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으므로 우리는 음악교육이 학교교육의 기본이 되어야한다고 믿는다.’ 라는 선언처럼 음악은 현대인에게 필수불가결한 교육과목이자 생활수단이다.

인간 역사를 통하여 고대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음악교육은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문화의 영속성과 미적인 삶의 고리를 이어주는 매체의 역할을 했다. 음악교육은 인간의 가치와 자아실현을 위한 사회적, 철학적, 물리적 기반을 제시했다. 교과로서의 위치 역시 확고하다. 주지주의 입장에서 IQ의 중요성과 더불어 학문중심적인 교과가 교과로서의 성격을 판단하는 기준이었다. 그러나 근대에 들어서 교과 성격 규정으로 학문적인 면 이외에 실용적인 면과 정의적인 면을

강조하는 입장은 모든 과목을 모두 교과로 인정하고 있는 추세다. 최근 들어 인간교육이 필수요건으로 감성지수 EQ의 중대성이 증가됨에 따라 음악교육의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학교 음악교육의 목적은 음악과 관련된 자신의 능력을 키우고, 수많은 음악 상품이 홍수를 이루는 사회에서 그것들을 능동적으로 수용하여 자신의 행복을 가꾸게 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을 공교육이 담당해주어야 하는 이유는 이러한 능력이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며, 누구나 행복을 추구할 동등한 권리가 있듯이, 음악은 특정 부류의 사람들만이 향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음악의 기본적인 사항들과 이것을 수용하는 능력은 전체 국민 모두에게 가르쳐져야 한다.

2. 音樂科 教育課程의 構成

1) 음악과 교육과정의 목표



음악과교육과정은 일반적으로 가창, 기악, 창작, 감상의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다. 이는 음악의 구성 요소를 다양한 접근 방법을 통해 지도함으로써 총체적인 학습으로 유도하고, 이를 일반적인 여가활동이나 전문적인 연주 및 감상 활동으로 연계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다.

그러나 전통적인 교육과정의 접근 방식은 교재에 수록된 주어진 악곡의 피상적 접근이 되기 쉬운 약점이 있다. 학생의 개성과 호기심을 존중하는 학습과정을 교육과정의 일차적 목표로 설정한다면, 현재의 개념 중심적 학습방법에 대해 일대 전환을 시도해야할 때임이 분명해진다.

오늘날, 학교에서의 일반화 학습과정은 음악의 궁극적인 목표보다는 부수적 목표, 즉, 음악의 표현을 위한 각종 기호들이나 작곡가들에 대한 이해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학습의 목표가 궁극적으로 음악에 대한 심미적 가치관에 접근될 수 있도록 교사의 열정이 요구되지만, 무엇보다도 교재에 대한 분석과 이를 바탕

으로 한 새로운 교육과정의 구성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어야 한다. 그 방법론에 있어서 체계적인 대안으로 음악과교육과정에서 다루어야 할 목표를 몇 가지로 구분한다면 다음과 같다.¹⁷⁾

첫째, 음악과교육과정은 자율적인 분위기와 아동의 다양한 욕구를 분출할 수 있도록 편성되어야 한다. 자율적인 분위기란 교사의 의도가 아닌, 학생 중심이 되고 그들의 관심 영역에 대한 배려를 의미하며, 다양한 욕구란, 그들의 음악적 접근 방식에 대한 교사의 개방적 태도를 말한다. 학생은 그들 나름대로 음악에 대한 지식과 접근 방식을 터득하고 있으며 이러한 접근 방식을 교사는 존중하고 이를 조장함으로써 활기찬 음악수업으로 유도할 수 있다.

둘째, 음악과교육과정은 다양한 장르의 악곡을 포괄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현재 음악교재 구성의 일반적 특징을 보면, 서구유럽의 18~19세기에 만들어진 민요나 예술음악을 주로 다루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학생들이 성장하여 자신의 삶을 주도해갈 때 이미 그러한 음악적 사고를 중심으로 예술을 이해하게 된다. 그러나 21세기는 각종 미디어 체계를 통해 문화와 예술의 장르가 매우 접근되어가고 있어, 그들이 세계의 모든 문화유산을 이해하고 즐길 수 있는 지적, 정서적 함축성을 지녀 인간의 행복추구에 대한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셋째, 음악과교육과정은 보편적인 음악의 원리를 깨닫게 하고 이를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원리는 모든 지식체계의 기본으로 음악과 학습에서도 목표의 설정은 다양한 음악 양식에 적용될 수 있는 원리를 함축적으로 전달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 배양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음의 구조와 이들의 조합을 통한 체계적인 구성 원칙에 접근할 수 있는 교수법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음악과교육과정은 보편적인 인간성(Humanity)을 개발하는데 모아져야 한다. 미국의 음악교육학자들이 1960년대 이후 줄곧 음악교육을 통한 인간성 개발에 주력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이는 현대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간파하고 음악

17) 송진범 (2004), 「음악교육학」, 학문사, pp.194~199.

교육을 통한 인간성 개발만이 이러한 모순된 사회구조를 타파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오늘날 한국의 사회 구조 또한 미국의 현실과 크게 다를 바 없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인간주의 음악교육의 당위성을 확인할 수 있다.

다섯째, 음악과교육과정은 한국의 전통적인 음악문화 창출을 위한 체계적인 접근과 이해를 돕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우리의 국악교육은 19세기말 개혁 논리에 밀려 서양음악에 자리를 내주었으며, 20세기 초에는 일제의 한국적 정신문화 말살정책에 밀려 다시 설자리를 잃어버렸다. 그 후 해방을 맞았지만 국악이 풍각쟁이나 기생들의 음악으로 매도되면서 또 다시 길을 잃어버렸다.

그러나 서양음악은 20세기를 통해 그들의 음악적 논리로서는 더 이상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어려워 자연스럽게 동양적인 선법과 소리의 무한한 잠재력에 매혹되어 그들의 음악 속에 구현해보려고 하였다. 실제로 올리비에 메시앙(Olivier Messiaen)은 인도 전통음악의 리듬 구조를 도입하였고, 삐에르 불레즈(Pierre Boulez)는 이국적 음악의 영향을 받아 구조적으로 결성된 ‘형성음’(Formanten)과 조종된 즉흥과의 절충 속에서 소위 ‘개방된 형식’으로의 길을 찾아냈다.¹⁸⁾

서구의 음악은 Anold Schonberg, Igor Stravinsky, Olivier Messiaen 이후 점차 동양적인 음악에 관심을 갖고 있으나, 유독 우리만이 우리의 음악에서 그 가치를 찾는 일에 소홀히 해왔다. 다행히 제5차 교육과정 개편 이후 국악교육에 대한 인식이 새로워지기 시작했으며, 제6차 교육과정 개정 때에는 교과서 내용 중 40~50% 정도가 국악으로 이루어지도록 고쳤다.¹⁹⁾

제6차 음악과교육과정 개편에 대하여 교육부는 그 배경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면서, ① 심미적 체험의 강조, ② 정의적 영역 학습의 강조, ③ 전통 음악교육을 주안점으로 두고 있음으로서 국악교육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히고 있다.²⁰⁾

18) 윤이상 · Wolfgang Sparrer, “나의 길, 나의 이상, 나의 음악”, 양인정역(1994),

도서출판, p.67.

19) 변미혜(1995), “바람직한 국악교육을 위하여”, 「한국음악사 학보」, 제14집,

대일출판사, p.234.

20) 교육부(1997), “중학교 음악과 교육과정 해설”,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p.25.

그러나 정부 당국의 전통음악에 대한 집념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음악교사들에 대한 국악 재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한다.

중·고등학교에서 음악교사로 재직하고 있는 선생님들 대부분이 서양음악을 전공한 사람들이고, 그들에게 있어서 국악은 너무도 생소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분야이다. 이들에게 아무리 국악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해도 쉽사리 학습의 장에서 다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은 사실상 무리이다. 자신이 흥미가 없고, 알지도 못하는 분야에 누가 접근하려 하겠는가. 따라서 정부는 교사들의 연수프로그램을 적절히 활용하여 전통음악에 대한 이해와 실기 능력을 높여 나가도록 정책적인 개선이 있어야할 것이다.

2) 음악과 교육과정의 문제점

음악교과의 일반목표에 의거하여 각 학년마다 학년 목표가 제시되어 있고 그에 따르는 상세한 내용이 다시 제시되는 식으로 구성되어있다. 교육부에서 공포한 7차 교육과정에 따르면 우리나라 음악과의 교육목표는 “다양한 악곡과 음악 활동을 통하여 음악성과 창의성을 기르고, 음악적 정서를 풍부하게 한다.”라고 다 음과 같이 제시되고 있다.

가. 음악의 구성요소를 이해한다.

나. 가창, 기악, 창작, 감상활동을 통하여 음악성과 창의성을 기른다.

다. 음악의 역할과 가치를 이해하여 음악을 생활화하는 태도를 기른다.

(교육부, 1997-15)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참고로 1차부터 7차까지의 음악과 내용영역체제의 변화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2. 음악과 내용영역체제의 변화표

제1차 (1955)	제2차 (1963)	제3차 (1974)	제4차 (1981)	제5차 (1988)	제6차 (1992)	제7차 (1997)
1.가창	1.가창	1.가창	1.기본능력	1.표현	1.이해	1.이해
2.기악연주	2.기악	2.기악	2.표현능력	2.감상	2.표현	2.활동영역
3.감상	3.창작	3.창작	가창		가창	가창
4.음악의 기초이론	4.감상	4.감상	기악		기악	기악
			창작		창작	창작
5.창작			3.감상능력		3.감상	감상

위 표와 같이 1차에서 7차에 이르기까지 각 교육과정은 음악활동의 네 영역, 즉 '가창', '기악', '창작', '감상'을 주된 지도 내용으로 보고 있으며, 이들 영역들은 그 동안의 몇 차례의 개정에도 큰 변함없이 음악학습의 주요 영역으로 지켜져 왔다. 이들 4영역은 곧 학습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학습내용과 직결되므로 상세화된 학습내용을 위주로 우리의 음악과교육과정의 문제점²¹⁾을 지적해보고자 한다.

첫째, 교과 내용이 각 학년과 영역마다 정확하게 제시되어 있다. 음악을 한다는 것은 학생들의 음악적 발달이 자로 재듯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없는 것으로, 학생의 창조성 계발을 중시하는 음악교육이 과연 틀에 박은 듯 모든 학생에게 일괄적으로 제시되고 진행되도록 짜여진 교육과정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심각한 사고가 있어야 하겠다.

둘째, 교과 내용이 발전된 학문의 지식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학문 자체의 발전에 발을 맞추지 못했다. 음악과 교과 내용은 거의 변함이 없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그동안 음악교육 자체의 발전과 이와 관련된 다른 교육 분야의 엄청난 발전을 고려하지 않고, 과거에 추출된 음악과의 내용이 변함없이 교육과정 속에 제시되었으며, 우리는 음악을 가르쳐야 하는 이유 자체에 대한 철학적, 이념적 규명이 약하고,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지에 대한 교육제도의 뒷받침이 빈약한 상태에서 선정된 내용을 몇 십 년 계속해서 교육과정 속에 포함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21) 성경희(1984), “2000년대의 학교음악교육의 방향”, 「교육과정 연구」, 제4집, 교육과정연구회, p.148.

셋째, 기능 연마를 중시하는 교과 내용이라는 점이다. 주입식으로 외우며, 기능 연마 하는 식의 음악교육은 지양되어야 하며, 학생의 창의성 계발, 음악미적 계발을 위해서는 주입식으로 어떤 기능을 연마하는 식의 학습내용은 지양되어야 한다.

넷째, 음악의 각 영역의 유기적인 통합을 꾀하지 못한 점이다. 음악은 하나의 통합체로서 느껴지고 배워져야 하는데, 음악의 모든 영역이 통합적으로 배워질 수 있도록 하나의 유기체로서 제시되게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음악 교육적 오리엔테이션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지금까지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음악과교육과정안은, 학문의 기본요소를 개념적으로 접근, 이해하도록 하는 브루너(Bruner, 1963)²²⁾의 구성중심교육과정의 이론에 입각한 나선형식교육과정(Thomas, 1971)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나선형식교육과정의 특성²³⁾은 음악의 개념들이 쉬운 개념들로부터 점점 어려운 개념들로 단계적으로 소개되며 각 개념들이 독립적으로 이해되고, 배워지면서 동시에 다른 개념들과의 상호관계 속에서 각각 다양한 음악구성의 형태 및 여러 개념의 통합체로서 탐구되도록 짜여진 점이다. 또한 음악을 하는 모든 행위들이 유기적으로 통합되어 음악의 제반영역이 하나의 총체로서 배워지도록 짜여진 점이 특징이다. 포괄적인 음악과교육과정안이 되기 위해서는 음악의 본질 개념의 내용과 심동적 영역의 내용, 그리고 정의적 내용들이 모두 유기적으로 통합되어야 한다.

22) 美. 심리학자. 1959년 ‘교육의 과정(The Process of Education)’ 출판. 피아제이론으로부터 인지발달과 학습과의 관계를 정립. 나선형교육과정, 발견학습론 등 아동의 인지발달에 바탕을 둔 수업이론 전개

23) 학습과정에서 일어나는 각각의 문제들을 상호연관지어 해결토록 함으로서 ‘흥미와관심’을 통한 지식과 경험의 점진적인 발전을 가능케 하는 것이다. Micael L. Mark는 나선형교육과정을 4단계로 설정하고 각 단계별로 「음색, 강약, 음고, 형식, 리듬」의 개념을 학생들 스스로 악기나 여러 가지 물체를 두드려서 소리에 대한 다양한 경험으로 시도함.

3. 音樂科 敎授・學習資料 및 方法

교육의 수용자와 교육의 기회를 베풀고 있는 입장에서 교육과정이란. 학습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이 진정한 교육적 의미가 있는 교육과정이다. 음악과의 목표를 보다 충실히 그리고 효율적으로 달성시킬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 어떤 내용을 선정하여 어떻게 교육과정을 조직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음악과교육과정 개발의 중요과제라고 할 수 있다. 즉 음악 예술로서의 요구, 음악 학문으로서의 요구, 학교 교과로서의 요구, 우리 사회가 바라는 시대적, 사회적 요구, 그리고 개개인의 자아실현을 위한 개인적 요구에 충실히 부응할 수 있는 내용을 선정하는 일은 곧 학교음악교육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과제이다. 또한 잘 선정된 내용들을 어떤 방식, 내용, 구성의 틀에 입각하여 구성함으로써 음악 교과의 본질인 학습자와 음악, 그리고 삶의 역동적 상호작용이 활발히 그리고 효율적으로 학교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 역시 음악교육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다.

음악과교육과정 개발은 음악의 본질을 알고, 음악교육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과정 개발자는 무엇보다도 투철한 음악 교육철학이 있어야한다. 음악과교육과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개발자는 적절한 과제 선정을 하여야한다. 따라서 과제를 선정할 때는 목적 도달에 반드시 필요한 과정인지를 염두에 두어야하며, 음악에는 기능적 요소가 있어 이해의 차원을 넘어 숙달을 통하여 비로소 그 가치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음악은 다른 교과와는 달리 특별한 흥미와 훈련을 요한다. 따라서 바람직한 것은 학생들이 음악교육과정을 통하여 음악적 내용과 기능의 습득은 물론이고 나아가 음악을 좋아하고 즐기는 태도와, 음악과 음악 행위를 가치 있게 여기는 바탕이 음악교육과정을 통하여 구축되어야한다.

교육과정은 교과목별, 학년 수준별 교육 내용 체계와 학생들의 학습 성취기준이 무엇인지를 교사와 학생에게 혼동을 주지 않을 정도로 치밀하게 마련되어야한다.

교육과정안이 구성되면 교수·학습을 위한 자료가 개발되며, 교육과정안에 포함된 내용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 교수·학습방법 등이 개발된다. 그러나 실상을 보면, 교육과정상에 전달되는 정보는 너무 개괄적이고 막연하여 교사나 학생이 해당 학년의 교육과정을 가지고서는 수업 및 학습에 구체적 도움을 받지 못한다.

구체적 학습내용을 전달하는 역할을 교과서가 담당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창의성, 상상력 교육에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

교과서란 사실상 교육과정 속에 제시된 학문의 내용을 충실히 학습하는데 필요한 학습 자료의 하나에 불과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실은 교과서가 곧 교육과정이 된 착각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로 교과서가 하나의 학문으로 가르쳐지고 있다. 교사 입장에서는 교육과정만 있으며 교과서 없이도 학생을 가르칠 수 있을 만큼 교육 내용, 방법, 평가 방법을 연구하고 안내하는 지표가 개발되어야 한다.

1) 우리 음악과 교수·학습자료 및 방법

음악과 교과서에 대해 그동안 교육과정 개정시마다 새로이 개발된 교과서를 살펴봄으로써 이에 따른 문제점²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음악과 교과서는 노래를 모아놓은 가창곡집에 불과하다. 이는 음악이라는 예술을 배운다는 기본 철학에서는 상당히 거리가 먼 것으로, 가창 위주의 교육적 신념이 반영된 것이다. 교과서는 음악에의 다양한 표현을 통해 개인의 창의적 활동을 학생이 중심이 되어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 내용이 폭넓게 선정되고 편성되어야 한다. 사실상 음악교육의 목표와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구성을 위하여 심층적인 사고와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둘째, 다양한 종류나 스타일, 시대를 대표하는 음악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교과서에 실린 곡들은 너무나 제한된 범위의 곡들로 어느 특정 시대·문화권을 대표하는 음악이라는 데에 문제가 있다. 우리 가곡도 해방 이후 특정 기간에 작곡된 곡들이 주류를 이루며, 전통음악도 제한된 음악적 자료를 제공하고 있어, 폭

24) 성경희(1984), 전거서, p.162.

넓은 음악교육을 할 수 있는 기초적인 바탕을 제공해주지 못하고 있다. 특히 감상곡은 우리 학생들에게 직접 연주하며 얻을 수 있는 음악적 경험보다는, 더 광범위하고 수준 높은 음악경험을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곡 선정 수준이 넓고 높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상곡으로 선정된 곡들은 제한된 시대와 스타일의 곡들로, 자라나는 세대의 음악적 욕구를 충분히 충족시켜줄 수 없는 심각성을 안고 있다.

이제 음악이라는 개념 정의가 모든 음악을 포함한 포괄적인 개념의 새로운 정의를 갖게 된 시점에서 제한된 음악만을 추구하는 음악교육은 지양되어야 한다.

특히 현시대에 살고 있는 학생들은 현대음악의 경험이 거의 없으며, 이에 대해 배우지 않는다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우리의 자라나는 세대는 인간의 소중한 미적 소산을 폭넓게 경험하고 그들의 미적 시야와 사고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셋째, 학생들의 창의성이나 미적 감수성을 발달시킬 수 있도록 내용이나 구성이 짜여져 있지 않다. 각 제재곡마다 곡 머리에 첨부된 노래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이는 학생들로 하여금 같은 생각과 느낌을 강요하는 것으로, 음악과 인간의 본질 속성을 고려하지 않은 교육이며 이는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음악 속에 담겨진 음악미적 가치를 학생 나름대로 느끼고 발견하여 음악적 성숙을 꾀하는 것이 음악교육의 주 임무다. 어떤 특정한 생각을 가지고 구절마다 주를 달아놓은 음악 교과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음악 교과서는 창의적이고 예술적 사고와 직접적인 음악에의 경험을 유도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특정 시대의 문화권에서 어떤 방식으로 작곡되었으며, 특정한 스타일이나 음악적 형식이 나왔고, 음악적 사상은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어떤 자료에 의해 나타났으며, 우리나라의 전통 음악의 독특성은 어디에 있는가를 음악을 통해 탐색, 경험, 발견하고 학습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구성된다면 그 교과서는 바람직한 음악수업으로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는 수업을 효율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좋은 수업 방법과 수업에 필요한 정보, 음악 문헌 등을 많이 실어 음악교사들로 하여금 질 높은 음악수업을 효율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지침서가 될 필요가 있다.

2) 외국의 교수·학습방법

학생의 음악미적 감수성을 최대로 발달시키기 위한 효율적인 음악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연구가 그동안 미국을 비롯하여 여러 나라에서 활발히 진행되어왔다.

그중 음악의 본질 개념을 중심으로 모든 음악활동의 제반 영역들을 통합적으로 가르치는 개념적 접근법이 효율적인 교수·학습 방법의 하나로 대두된 지는 오래되었다. 개념적 접근법은 그 기본 개념에 있어서 학문의 기본 요인을 개념적으로 접근, 이해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해가는 지식을 쉽게 이해하고 새로운 문제에 접했을 때 현명하게 창조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데 그 주목적을 두고 있다. 따라서 음악학습에 있어서의 개념적 접근법은 음악의 기본이 되는 본질 개념들을 배움으로써 음악의 본질적인 개념 및 구조, 그리고 그들의 상호관계 등을 이해하도록 하여 새로운 음악적 문제에 접했을 때 학생들로 하여금 음악적으로 해결해나갈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데에 주목적을 둔 음악 수업방법이라고 하겠다(Gary, 1967). 이것은 곧 특정한 음악이나 한정된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님을 뜻하며 음악의 기본 개념을 폭넓게 가르치고 모든 음악활동의 필수영역인 제반 영역들을 통합적, 총체적으로 가르치도록 이끈 방법론이다.

개념적 접근 수업방법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요인은 수업이 학생 중심, 경험 중심, 창조 중심의 수업 활동이다(성경희, 1985). 교사가 중심이 되어 학생들이 음악에 대해 배우는 식의 음악수업이 아니고, 학생이 음악을 직접 체험하며, 창의적으로 음악 학습을 하는 수업활동을 의미한다. 그러한 수업활동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폭넓고 다양한 교수·학습 자료가 필요한데, 이 자료들은 가르치고자 하는 개념들이 잘 나타난 자료들이어야 하며, 음악의 제반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달시킬 수 있는 자료들이어야 한다. 이 수업은 노래와 제한된 악기만 연주하는 음악수업이 아니고 신체 표현, 율동, 지휘, 악보 읽기, 작곡 및 분석, 토의, 평가하는 폭넓고 다양한 음악적 경험 및 활동을 요한다. 개념적 접근법의 철학에 기초한 음악 교수·학습은 미국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이미 상당 수준의 정착 단계에 이르고 있다.

4. 音樂敎科와 學習 評價

학습 평가는 일반적으로 학습 활동을 통해서 습득되어진 지식이나 행동 그리고 가치에 대해서 교사가 이를 다시 피드백 하여 새로운 학습 활동에 반영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Ralph Tyler는 “평가는 우리가 개발하고 조직한 학습 경험이 실제로 얼마만큼 의도한 성과를 거두고 있느냐를 조사하는 과정이며, 아울러 평가의 과정은 계획의 장점과 단점을 밝혀내는 것이다.”라고 평가의 필요성을 정리하고 있다.²⁵⁾

1) 음악 교과 학습평가의 문제점

평가 활동에서 중시 여기는 요인은 무엇보다도 평가의 타당도, 신뢰도, 객관도 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음악 교과의 경우 실기 능력을 평가하여야 하며, 이 과정에서 음악예술의 본질적인 속성, 즉 예술성, 독창성, 창의성 등 주관적인 속성이 중시되는 교과적 특성을 평가하여야 하기 때문에 평가 활동에서 중시 여기는 객관성 확립이 어려운 과제의 하나로 존재한다. 따라서 음악 교과 평가는 주관성을 최대한 인정하고, 동시에 객관성을 고도로 높일 수 있는 음악교과 평가 체제의 구축이 중요한 과제 가운데 하나이다.

음악교과 교육이 평가 활동에 어려움을 주는 또 다른 요인은 음악교육에서 중시 여기는 태도와 가치관에 대한 평가 문제이다. 음악 교과교육은 개인의 평생을 통한 음악적 안목에 대한 발달 및 음악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관 획득을 중시 여긴다. 음악 교과교육에 있어서 태도나 가치관 등 정의적 영역에 대한 평가는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시 여기는 평가 체제로 전환될 때 평가가 가능하게 될 것이다. 이는 음악교과 평가는 평가 목적과 대상에 따라 다양한 평가 방법을 도입해야함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우리나라의 경우 음악과 평가의 본질적인 문제를 포함하여 학교 현장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평가의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다.

25) Ralph Tyler, 「교육과정과 학습지도의 기본원리」, 이해명역(1998), 교육과학사, p.94.

① 실음을 바탕으로 한 청각 위주의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음악은 청각 예술이다. 음을 떠난 음악과 교수, 학습이나 이에 따른 평가는 음악교육의 본질적 속성에서 크게 벗어난다고 하겠다.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대부분의 음악과 평가가 실음을 바탕으로 한 청각 위주의 평가와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는 결과적으로 충실한 음악교육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모든 음악 학습은 항상 실음을 위주로 해야 하며, 평가 역시 실음을 바탕으로 한 청각 위주의 평가가 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② 음악과의 여러 학습 영역(지적, 심동적, 정의적)이 골고루 평가되지 못하고 특정 영역에 치우친 편협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음악교육은 크게 지적 이해와 행위 등을 다루는 인지적 영역과 다양한 표현행위를 다루는 심동적 영역, 그리고 태도 및 가치관 등을 다루는 정의적 영역을 포함한다. 따라서 음악학습은 이들 3영역을 모두 균형 있게 그리고 상호연계 속에서 총체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평가는 이들 3영역 중, 심동적 영역 중에서도 가장 실기에 국한되어 있어 편협된 음악 학습 및 평가 관행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음악과 평가는 음악을 이루는 모든 영역에 대한 광범위한 평가를 필수로 하며 각 영역별 평가시 각 영역속의 특정 분야에 치중되지 않도록 함을 필수로 한다.

③ 음악과의 각 영역간의 평가의 배점 기준에 일관성이 없다.

음악의 여러 학습 영역에 대한 평가의 배점 기준이 없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학교나 교사에 따라 다양한 평가 배점 기준이 존재하며 이는 평가의 객관성 및 신뢰도, 그리고 타당도 유지 측면에서 어려움을 제기하고 있다. 음악과 평가의 질 향상을 위해 타당한 평가 배정 기준이 정해져야 할 것이다.

④ 학생들의 다양한 음악적 능력을 폭넓게 평가하지 못하고 있다.

특정 영역에 치우친 편협된 음악학습에서 연유하는 평가 관행으로 인해 개개인 학생이 지닌 다양한 음악적 능력이 폭넓게 평가되지 못하고 있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학생의 총체적인 음악적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체제의 개발 및 실행이 요구된다.

⑤ 진단이나 형성평가보다는 주로 결과중심의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현장의 평가 관행이 음악을 배우는 과정 등에 대한 평가는 거의 하지 않고 결과를 중시여기는 총괄평가로 일관되어있어 편협된 평가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학교 음악교육은 전인교육 실현의 추구라는 측면에서 음악을 배우는 과정을 중시하고 개개인 학생의 꾸준한 음악적 능력의 발전을 중시하는 평가체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⑥ 객관성과 공정성 그리고 타당도가 높은 평가 도구의 부재 및 다양한 측정 방법이나 도구를 사용하는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현장에서의 평가가 주로 음악 이론에 대한 지필검사와 교사의 실기평가로 주축이 되어있어 편협된 평가 관행의 문제점은 물론, 평가의 타당도, 객관도, 신뢰도에 많은 어려움이 제기되고 있다. 객관도와 신뢰도가 높고 학생의 다양한 음악적 능력을 잴 수 있는 다양한 측정도구 개발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⑦ 정의적 영역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음악교육은 음악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나 가치관 발달에 중점을 둔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평가는 음악교육의 목표 도달도 평가의 관점에서 반드시 실시되어야 한다고 하겠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학생의 음악적 관심도와 음악관, 음악에 대한 긍정적 가치관 등에 대한 평가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포괄적인 음악교육의 실행 측면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⑧ 절대시간 부족으로 심도 있는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음악과 평가는 본질적으로 상당한 시간을 요하는 분야이다. 현장에서 수많은 학생을 음악교사 혼자서 평가한 경우 절대시간 부족으로 인한 평가의 어려움이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의 개선을 위해 무엇보다도 적은 시간을 들여 학생의 다양한 음악적 능력을 가능한 한 모두 평가할 수 있는 방법 및 도구개발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를 위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실기능력을 집중적으로 평가하는 결과 중심의 평가에서 다양한 능력을 수시로 평가하는 과정 중심의 평가 관행으로 바꾸는 방법이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⑨ 학생 평가 외에 음악의 프로그램이나 음악교사에 대한 평가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학교 음악교육의 평가는 크게 학생의 학업성취도 평가, 음악교사의 효율성 평가 그리고 음악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폭넓게 포함한다. 학교 음악교육의 전반적 발전은 이들 세 분야의 유기적 발전에 달려있다. 음악교사의 효율적인 교수 없이 학생의 음악적 발전은 기대하기 어려우며 좋은 음악교육 프로그램이 부재한 상태에서 수준 높은 학교 음악교육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음악과 교육의 평가는 이들 3분야의 폭넓은 평가를 요한다. 현장에서의 평가 관행은 음악교사와 음악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거의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이는 학교 음악교육의 총체적 발전을 위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2) 음악 교과 평가의 기본방향

평가의 문제점들을 감안하여 음악과 평가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면 다음과 같다.

① 음악교과 평가는 현행의 교과서 제재 중심에서 교육과정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음악교과 교육과정의 목표와 평가내용의 직접적인 관계를 강화하여, 교과서 내용에서 탈피하여 음악에 대한 광범위한 내용을 폭넓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 평가에 관한 포괄적인 관점은 교과서 중심의 암기 위주식 학습을 지양하고 음악에 대한 폭넓은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동기적 역할을 할 수 있다.

② 음악교과 평가는 그 내용에 있어서 지적, 심동적, 정의적 영역을 모두 내포하는 총체적인 평가로 전환되어야 한다. 음악교과 평가는 한 영역에 치우치지 않고 모든 영역을 포함하여야 하며 이 모든 영역이 총체적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학생의 음악적 능력이 총체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 음악교과 평가 내용이 되기 위해서는 음악을 하나의 통합된 활동으로 보아야 한다.

③ 음악교과 평가는 학생의 다양한 음악적 능력을 폭넓게 측정할 수 있어야 할 뿐 아니라, 학생이 잘하는 분야의 음악적 능력을 인정하는 평가로 전환되어야 한다. 학생의 음악적 능력을 폭넓게 짚 수 있기 위해서는 모든 영역에 대한 평가 내용이 다양한 수준과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음악교과 평가는 숙련된 기능보다는 창의성이 중시되는 평가로 전환되어야 한다. 음악교과에서 가장 중시 여기는 영역이 창의성이다. 학생의 음악적 창의성 계발에 주력하고 있는 음악교과 교육은 그 평가에 있어서도 숙련된 기능보다는 창의성을 더욱더 높이 평가하여야 한다.

⑤ 음악교과 평가는 결과 중심에서 과정-결과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현행의 학습과정은 결과만 중시 여기는 음악교과 평가 관행에서, 학습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중시여기는 평가 관행으로 바뀔 필요가 있다.

⑥ 음악에 대한 태도와 가치관 형성을 중시여기는 평가이어야 한다.

평생을 음악을 통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하고,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서 학교 교육을 마친 후에도 음악을 즐기며, 보다 풍요로운 삶을 살수 있는 태도와 가치관을 음악교과 교육의 모든 과정을 통하여 체득하게 할 필요가 있다.



IV. 學校 音樂敎育의 問題點과 代案 摸索

1. 우리나라 音樂敎育의 現實

1) 音樂敎育의 현실

내용과 방법은 다를지 모르나 이 지구상에 음악이 없는 민족은 없다. 고대, 중세, 현대에 이르기까지 음악이 존재하지 않았던 적은 인류 역사상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관점에서 음악은 세계의 문화적 공통 현상이라고 일컬어지고, 이는 인간의 본성에 음악적 속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강력히 시사한다. 많은 학자들이 음악의 보편능력설과 교육의 필요성을 피력한다. 미국의미학자 Suzanne K. Langer는 “인간은 상징체계를 개발하여 사용하고자하는 본능이 있으며, 음악적 상징체계는 언어, 수리, 문자와 아울러 인간이 개발한 가장 고귀한 상징체계에 속한다.”라고 음악교육의 필연성을 뒷받침한다.

교육의 주된 목적은 한 세대의 문화를 다음 세대에 전수하는데 있으며, 음악은 모든 문화권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다. 교육은 지적인 면과 정적인 면의 균형적 발달을 기본으로 하며, 음악은 지적인 면은 물론, 정의적인 면의 교육을 위한 최선의 자료이며, 최고의 상징체계 가운데 하나이다. 상징체계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 배양은 교육의 기본 목적이다.

음악적 능력은 인간이 지닌 천부적인 능력 가운데 하나다. 인간 능력 개발이 교육의 목표임에, 음악적 능력도 학교교육을 통하여 개발되어야 한다. 음악은 다양한 삶과 유사한 학문이자 예술이다. 교육의 목적은 개개인이 삶에 잘 적응하도록 돕는데 있으며, 음악은 바로 이러한 목적에 가장 적합한 학문성과 실용성을 겸비한 교과이다.

현대인에게 있어서 음악은 그 기능이 매우 다양하고 불가결한 요소로 자리 잡게 되었다. 치유로서의 음악, 정신적 휴식 매체로서의 음악, 생산의 촉매제로서의

음악, 지적 발달을 촉진하는 요소로서의 음악, 즐거움으로서의 음악, 미적 향수의 대상으로서의 음악, 산업으로서의 음악, 등. 최근 연구 결과는 학교교육에서 음악 교과에의 중요성을 재평가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유치원교육에서의 음악교육의 위상은 이미 확고하고, 외국의 경우 초등교육에서도 점차 핵심 교과(core subject)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입시 위주 교육과정의 운영으로 말미암아 음악교과를 비롯한 예체능교과는 주변 교과로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초등학교 음악교육의 현실은 아직도 전문성이 부족한 교사들로 인한 체계적인 학습활동이 사실상 어렵고, 아동들은 이러한 정서적 부족감을 사회교육에 의존하는 형편이다. 이는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지출 과다를 초래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학교 음악교육에 대한 불신, 나아가 국가적 교육목표의 달성에도 커다란 차질을 초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중등학교 음악교육의 현실은 더욱 커다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중학교 학생들의 심리 상태는 불안정하고 반항적이며, 또래 집단과의 연대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으려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예술적으로 수준 높은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들은 예술적 감성을 단지 절대적인 지적 논리로서 측정하려는 경향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어 안타까운 현상이 아닐 수 없다.

학습 평가의 방법은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의 학생들에게 바로 학습 방법으로 연결되는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평가방법은 예술적 감성을 길러 주려는 음악과 학습의 궁극적인 목표에는 도움을 주고 있지 않다. 또한 전통적인 교수법에 안주해 있는 음악교사들과 대학입시에서 제외된 교과목이라는 학부모들의 인식, 그리고 정부 당국의 무관심들이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다. 음악이 인간에 미치는 영향과 음악교육의 결핍이 인간성에 미치는 중요성을 감안할 때,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을 통한 음악교과에의 제자리 찾기가 하루 빨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설문을 통한 우리 음악교육의 현실

필자가 지도하고 있는 도시외곽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통한 음악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을 피력해보면 다음과 같다.

(1) 음악교과 시간의 선호도 조사에서 여학생은 음악을 싫어하는 학생이 7.3%, 남학생은 42.2%로 남학생이 훨씬 많았으며, 싫어하는 이유로는 ‘음악에 대한 기초 지식이 없어서’가 제일 많았고, 그 외 ‘음악을 별로 접해보지 않아서’와 ‘변성기라 노래 부르는 것이 부담스럽다.’라는 소수의 의견이 있었다. 즉 학생들은 음악에 대한 기본 지식이 갖추어 있을 때 흥미를 느낄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 학생들이 관심이 있는 음악의 장르 조사에서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렇듯이, 가요 79.6%이고, 그 외 팝송과 고전음악 순으로 나타났다. 필자가 도시 학교에서 지도한 바에 의하면, 도시 학생들은 조기 교육으로 고전음악을 접할 기회가 많아 고전음악을 선호하는 학생이 시골에 비해 높았다.

앞으로 학생들이 관심을 갖고 학습해야 할 음악의 장르 조사에서는, 고전음악과 국악이 고르게 나타나 대중가요에 관심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와 가정과 학교에서 계획적인 프로그램으로 교육하면 다양한 음악의 장르를 즐길 준비가 되어있음을 알 수 있었다.

(3) 초등학교 때 방과 후 교육활동으로 1년 이상 다루었던 악기로는, 피아노가 제일 많았다. 여학생 46.4%, 남학생은 10.4%로 남녀의 차가 크게 나타났으며, 그나마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 대부분 학생은 중단하고 있었다.

(4) 취미생활로 배우고 싶은 악기로는, 남학생은 기타였고 여학생은 피아노가 제일 많았으며 그 외 드럼, 플룻, 바이올린, 첼로, 클라리넷, 색소폰, 오카리나 등 다양하게 나타났으나, 국악기는 거의 없어 지역사회에서 전문 국악인의 활발한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었다.

(5) 음악교과 시간에 흥미 있는 음악활동으로는, 여학생은 합창과 합주를 제일 선호하여 더불어 즐기는 실기 위주의 활동을 좋아하고 있으나, 남학생들은 감상을 선호하고, 정적인 음악활동을 즐겨 여학생보다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

(6) 1년에 음악회장에 가는 횟수를 조사한 결과 84.5%의학생이 한번도 음악회장에 가 본적이 없어 학생들의 정서교육의 대부분이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이 자녀들에 대한 정서교육보다는 학문 위주의 교육에 집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필자가 지도한 바에 의하면, 방학을 이용한 음악회 및 마스크림 영상을 통한 감상문으로 수행평가를 실시하면, 시골임에도 불구하고 가족들과 음악회장을 찾는 학생들이 많았으며, 감상문을 통하여 음악회를 통한 가족애와 신선한 느낌을 생생하게 기록하였고, 선생님에게 만들어준 기회에 대한 감사와 앞으로도 음악회를 자주 다니겠다는 학생들이 많았다.

여러 날 공연하는 국제관악제를 비롯한 학생들의 흥미를 끌 수 있는 많은 음악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의 정신문화를 이끌어갈 학생들의 참여도가 낮은 것은,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 및 마스크림, 부모와 교육자들의 홍보가 부족하다고 하겠다.

(7) 음악활동이 인성교육면에서 도움을 주는 부분으로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생활의 여유로움과 자신의 감정을 조절해준다고 답을 한 학생들이 많아, 음악에 대해 느끼는 감정이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8) 현재 교과 외에 음악활동에서 방해받는 요인으로는 시간 부족이 제일 많았고 그 외 악기구입, 레슨비, 연습 공간 등을 들었다. 1인 1악기 연주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음악의 중요성을 말하지만, 사회의 흐름은 이와는 거리가 먼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평생교육 차원에서 어른들의 문화교육 프로그램은 각종 단체 및 학교에서 다양하고, 활발하게 운영되어 적은 비용으로 취향에 따라 배울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거의 없는 실정이고 최근 방과 후 교육활동을 강조하고 있으나, 초등학교에서는 예체능교육 프로그램이 활발히 운영되고 있지만, 중등에서는 교과 위주의 교육활동이 주를 이뤄 학업에 지친 학생들을 방과 후까지 붙잡아 교육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정작 학생들이 원하는 인성교육 차원의 교육활동이 아닌 학업 위주의 교육활동을 학교에서 강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9) 그 외 설문 내용으로, 방과 후 교육활동 장소로 학생들은 학교를 선호하였고, 부모들이 자녀에 대한 음악교육의 관심도는, 필요성을 알고 있는 정도였지 적극적인 자세는 아니었다. 학생들이 가정에서 음악을 감상하기 위해 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는, 시대 흐름에 따라 컴퓨터나 MP3 등을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었고, 전문 오디오기기는 가정에도 별로 없을뿐더러 음향의 웅장함과 섬세함을 생동감 있게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 고전음악에 대한 흥미를 끌어들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학교 교육현장에서나마 최신장비를 마련하여 가정에서 충족시키지 못하는 부분을 충족시켜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2. 音樂教育의 새로운 代案

1) 음악적 능력은 교육을 통하여 발전 한다

미국의 찬송작가 로웰메이슨(Lowell Mason)시대에는 음악적 능력은 선택된 소수의 전유물이라고 믿었다. 이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가 계속되었고, 오늘날 음악적 능력은 누구나 가지고 태어나는 기본 능력이며, 교육에 의하여 개발되어 진다는 것이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음악적 능력의 보편성은 공교육을 통하여 개인의 음악적 능력을 최대한 개발시킬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좋은 환경과, 적절한 교육적 자극을 통하여 음악적 능력은 최대한 개발되어 질 수 있다는 정설이 하루 빨리 정착되어야 하며, 특히 조기교육을 통한 음악능력의 개발은 교육의 적정 시기적 차원에서 상당히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초 등 음악교육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전인교육 차원에서 음악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때, 음악적 능력은 선택된 소수의 전유물이 아니라, 보편적 능력임을 누구나 인식하게 될 것이다.

2) 음악전문가교육과 일반인교육이 구분되어야한다

학교교육은 크게 전문가교육과 일반인교육으로 나눌 수 있다. ‘음악의 특성상 음악은 어렸을 때부터 교육되어야 한다.’는 믿음 때문에 적지 않은 경우 음악의 전문가적교육을 조기에 실행하게 된다. 좋은 결과도 있지만, 교육적 부작용을

많이 본다. 일찍이 교육한다는 것과 전문가를 양성한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며, 교육하되 음악적으로 필요한 내용을 아동들의 발달단계에 따라 교육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음악교사들이 받은 교육적 내용은 음악전문가를 위한 교육 내용이었다. 이들이 현장 교사가 된 후에, 자신들이 교육 받았던 내용을 학생들에게 강요하는 결과가 ‘음악교육은 음악전문가 교육’이라는 등식을 만들어낸, 주 요인이라 생각된다. 이런 관점에서 교사 교육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며, 학교 음악교육을 통하여 다양한 음악을 다양한 각도에서 경험하고, 즐기며, 가치화할 수 있을 때 음악을 평생 즐길 수 있으며, 생활화할 수 있는 터를 만들어주게 되는 것이다.

3) 국악과 양악의 미적 가치와 교육적 가치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해방 이후 음성적으로 전수되어온 전통음악 교육이 점차 양성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실질적으로 중요성을 인식하고 강조하게 된 것은 1980년대에 들어 우리의 경제 사정이 선진국 형에 이르자 문화교육에 대한 여력이 생겼다.

음악계에 문제가 된 것은 국적 있는 음악교육에 관한 내용이었다. 덕분에 국악 교육에 대한 자료 및 이론 정립이 활발해졌고, 서양음악 제일주의의 원칙은 제동이 걸렸으며, 국적 있는 음악교육 문제가 대두되게 되었다. 교육과정, 교과서, 그리고 현장의 음악교육에서 전통음악 교육의 비중이 제기되게 되었고, 교사 재교육이 얼마간의 전통음악을 연수하는 것으로 할당되었다. 문제는 서양음악이든 국악이든 간에 교육적 미적 가치가 있는가. 그 가치란 우리 음악교육이 표방하고 있는 목적에 부합하는가. 하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서양음악이 문화적, 예술적 가치가 있고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음악도 역사적, 문화적, 전통적인 가치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상품은 질이 좋은 것과 떨어지는 것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음악은 상품이 아니며, 우리 음악과 서양음악간의 학교 교육내용 문제와 교육적 가치의 문제는 취향과 태도에 관련된 문제이지 경쟁의 대상이 아니다. 문제는 우리 전통음악의 교육에 대한 이론적, 자료적, 방법론적인 연구가 심도 있게 전개되어 현장 교사들로 하여금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이 하루 빨리 조성

되어져야 한다. 그래야 교육적 균형과 취향의 선택에 따른 공평한 음악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그때에 비로소 우리의 학교 음악교육은 국적 있는 음악교육의 구실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4) 음악교육은 실용적 가치와 심미적 가치를 공히 포함 한다

음악을 교육하면 결과적으로 얻는 소득이 무엇인가? 라는 것은 과학 우선주의, 물질 우선주의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제기되는 질문이다. 교과로서의 음악교육의 의의와 가치는 여러 각도에서 조명되어졌다. 1987년 Draper와 Gayle의 조사에 따르면 음악 교과서에 나타난 음악교육의 가치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자신의 표현과 창조적 즐거움을 준다.
- 심미적인 감각을 개발시킨다.
- 신체의 발달과 신체 리듬의 발달에 도움이 된다.
- 문화적 유산을 계승 발달시킨다.
- 목소리의 개발과 언어의 사용에 도움을 준다.
- 지적인 발달과 추상적인 사고 기능을 개발시킨다.
- 사회성과 단체의식을 함양시킨다.

위 내용은 음악 내적인 가치와 음악 외적인 가치로, 음악교육의 가치를 인간의 심미적 특성을 충족시키고 계발시키는데 있다고 믿는 쪽이 있는가하면, 음악적 능력을 계발하여 사회와 국가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는데 있다고 주장하는 쪽이 있다.

Draper와 Gayle에 의하면 100년에 걸친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음악교육의 가치에 대한 변화를 볼 수 있게 되는데, 심미적인 심성도야의 차원에서 점차 지적인 발달, 문화유산의 계승, 사회성과 단체의식의 함양 등으로 그 가치의 변화를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입장에서 달리 묘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단지, 당시의 사회적 또는 교육적 목적에 부합한 형식의 변모일 뿐 가치 자체는 고정적인 것이다. 음악교육의 가치는 음악자체의 가치와 음악을 통한 수반적 가치

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왜냐하면, 음악은 소리를 재료로 사용하는 예술이자 학문이며 이는 내용적 가치와 결과적 가치를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음악과의 과제는 교과로서의 음악교육의 가치를 다각적 측면에서 연구하여야 한다. 음악적 측면에서만 바라본 가치가 아니라 사회의 필요적 요소에서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이에 따른 교육과정을 개발하며 필요한 내용을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분명한 것은 음악은 인간을 위해 존재하며 궁극적으로 인간의 세계를 구성하는 요소가 된다는 점이다.

5) 예술음악과 대중음악의 교육에 대한 가치

학생들이 가장 많이 선호하는 대중음악은 학교에서 교육적 학습과정에서보다는 가정에서의 음악적 환경과 부모들의 무의식적인 대중음악 선호현상에서 기인된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학교에서의 음악교육은 청소년들에게 그리 커다란 영향을 주지 못하는 반면, 가정에서의 음악적 환경은 절대적이라고 볼 수 있다. 대중음악의 질적인 문제, 교육적 효과의 문제, 교사의 수용 태도에 대한 통합적인 고찰을 통하여 확고한 철학 위에 유연성 있게 다루어져야 할 과제이며, 음악교사 교육과정에서 심도 있게 논의될 필요성이 있는 논제이다. 교사들이 주지해야 할 사항은 교사들이 학생으로 있던 시기와 이제 그들이 가르치고 있는 시대의 학생들의 가치관, 환경, 음악적 환경 등이 모두 다르다는 사실이고, 이러한 변화는 하루가 다르게 가속화되며 그칠 줄 모르고 진행된다.

교육수용자의 입장을 감안한 교육과정이라면 학생들의 요구가 반영된 대중음악을 교사가 소개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교과로서의 음악이 교육 내용으로 가요를 가르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는 문제는 음악교육의 내적 가치와 외적 가치를 감안한 심도 있는 사고와 철학에 근거한 결정이어야 한다.

음악의 가치는 불변하지만 그 상대적 가치는 사회적 요인, 문화적 요인, 환경적 요인 등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하여 달라질 수 있다. 또한 음악매체의 사용이 다양해짐에 따라, 취향 역시 매우 다양해져 선호하는 음악의 다양함을 알 수 있다. 음악교육의 방향은 청소년들의 음악적 성향을 토대로 한 교재의 재편성과 악곡의 교육적 가치에 대한 분석이 심층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6) 초등교육에서 음악교육의 통합적 접근

현행 교육과정은 음악, 미술, 체육을 ‘즐거운 생활’이라는 교과로 통합하여 초등학교 1-2학년 동안 교육하도록 되어 있고, 각 교과 차원에서는 통합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가지고 있으나, 교육학자들의 입장은 통합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즐거운 생활’이 음, 미, 체, 교과의 내용을 통합이라는 명제 하에 일체 부인한다면 교과로서 ‘즐거운 생활’의 성격과 위상은 과연 무엇이며, 정작 감수성의 발달의 중요한시기이며, 기능 발전의 터가되는 초등학교 1.2학년 음악, 미술, 체육교과가 배제되었을 때, 인성 교육적 차원의 결손으로 인한 교육적 책임은 과연 누가 감당할 것인지 등에 대한 종합적인 고찰이 있어야한다.

통합교과가 교육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으며 분리 교육하였을 경우에 비하여 상대적인 교육적 효과는 무엇인지에 대한 통합교과에 대한 교사, 학생의 인지도 및 반응 역시 면밀하게 검토되고, 교육적으로 적절한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한 다각적인 기초 연구가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외국의 경우 음악을 통합적으로 가르치는 나라는 있지만, 음, 미, 체를 의도적으로 통합하여 하나로 교육하는 나라는 없다.



7) 음악과 평가에 대한 쟁점

교과로서의 음악은 반드시 평가를 해야 한다. 문제는 예술교과로서의 음악을 어떻게 평가하는 것이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평가가 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대학입시와 관련된 내신문제와 학생부의 성적기재 문제 등은 음악 교과의 평가를 보다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체제 및 실질적인 방법을 요구하고 있다. 음악과 평가 문제는 다른 교과와 달리, 실기평가가 포함되고, 실기평가의 경우 1:1 개별 평가가 되어야하므로 많은 평가 시간을 요구한다. 현행 고등학교의 경우 주당 1시간의 음악 시간을 통하여 한 학기 동안에 만족스러운 교육을 수행하며,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방법과 체제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와 방안이 필요하다.

8) 음악교사 교육과 음악가 교육의 차별화

우리나라 음악교육의 문제점으로 음악교사 교육과 음악연주자 교육이 성격상, 교육과정 내용상 별 차이가 없다. 음악대학의 모든 프로그램은 음악연주자를 교육하도록 되어있다. 또한 많은 대학들이 교사 교육기관으로 시작하였으나, 교육과정은 한결같이 교사 교육을 하기위한 것이 아니라, 연주자 교육을 하기 위한 중간 과정으로서의 편법적인 과정임을 최근의 추세로 알 수 있다²⁶⁾. 교육의 본질적 개혁은 교과 본질이 교육 현장에 실현될 때 비로소 가능하다. 교과 교육의 내용과 본질은 교육의 주체인 교사들을 교육하는 과정에서부터 철저히 이루어질 때 교육 현장에 제대로 소개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교사 교육의 내용을 점검하고 바람직한 교과과정을 위한 구체적인 강좌를 제시하는 일은 교과 교육의 정체성 규명과 연결된 의미 있는 연구라 생각된다.

9) 음악교육의 지도방향

음악교육의 방향은 학생의 음악적 성향을 토대로 한 교재의 재편성과 악곡의 교육적 가치에 대한 분석이 심층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결국, 인간이 태어나서 성인에 이르기까지 음악을 받아들이고 생활화하는데 있어서 첫 번째 요인은 가정적 환경에 있음을 알 수 있다. 학교와 가정에서의 음악적 분위기를 어떠한 형태로 이끌 것인가라는 명제는 결국, 학생의 음악적 성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임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이다. 삐아제의 인지발달과정에 따른 아동의 음악수업 단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삐아제의 인지발달과정을 통한 음악수업²⁷⁾

- ① 감각기(sensorimotor stage) ; 출생-2세
- ② 직관적 혹은 전조작기(intuitive or preoperational stage) : 2세 - 7세
- ③ 구체적 조작기(concrete operation stage) : 7세 - 11세
- ④ 형식적 조작기(formal operation stage) : 11세 -16세

26) 많은 대학들은 음악교육과로 허가를 받고, 예술대학으로 승격과정을 거치면서 음악교육과는 폐쇄시킨다. 또한 정원을 늘여 음악대학으로 승격하는 과정을 우리나라 거의 모든 대학들은 밟아오고 있다.

27) 김명주(1984),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음악유형에 관한 조사연구”, 서울대학교대학원 교육학과 음악전공 석사학위논문, p.32.

감각기의 유아인 경우, 감각을 통한 즉각적이고 일시적인 반응에 의해 즉각적으로 자신을 표현한다. 음악적 인지발달 단계를 적용시킨다면 이 시기의 유아에게 음악은 즉흥적이고 일시적인 자신의 의사표현으로 볼 수 있으며, 이 시기에 부모가 음악적 환경을 즐겨 만들어 준다면 자신의 의사표현은 그 환경 속에서 작용하게 되므로 자연히 환경에 쉽게 근접하게 된다는 것이다.

직관적 혹은 전조작기의 유아는 자신의 상상력을 확대시키고 이를 저장시키는 능력이 가히 폭발적이라 할 수 있다. 이시기의 어린이는 부모나 친지들 앞에서 자신을 표현하는 기회가 많을수록 좋아하는 경향이 있다.

구체적 조작기의 아동은 매우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현실을 추구한다. 음악교육에 있어서 이 시기는 아동의 음악적 재능을 판단하고 체계적으로 교육할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기회의 포착, 재능의 극대화, 부모의 끊임 없는 관찰과 후원이 아동이 음악적 성장을 판가름하는 절대적인 요소인 것이다.

형식적 조작기의 아동은 보다 논리적인 사고와 이성적인 행동 특성을 보여주는 시기로서 학습능력의 구체화, 응용력 고취, 추상적 개념의 합리적 개념으로의 추구, 상징적 의미에 대한 이해를 빠르고 체계적으로 도출해낼 수 있다. 이시기의 아동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우선 아동의 심리적 안정과 행동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므로 정서적이고 예술적 가치가 풍부한 음악을 가까이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주는 일이 중요하다. 이 시기의 아동은 고전적이고 예술성 있는 음악보다 충동적이고 단순한 리듬을 가진 대중음악을 선호한다. 즉, 그들이 가장 많이 선호하는 대중음악은 학교에서 교육적 학습과정에서보다는 가정에서의 음악적 환경과 부모들의 무의식적인 대중음악적 선호현상에서 기인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음악교육은 시기별로 적절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전반적으로 음악교육의 지도 방향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사회 생활과 음악과의 관련에 대하여 배려한다.
- 텔레비전, 영화, 라디오 음악에 관심을 가지고 학교음악과의 밀접한 연관을 고려한다.
- 음악능력의 개인차를 배려한다.

- 변성기 학생에게 적절한 지도를 한다.
- 방과 후 활동을 통해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기악이나 성악을 지도하게하고, 재능 있는 학생은 전문기관을 통해 능력을 뽐어가게 해준다.
- 지역 학교끼리 합동하여 전임교사를 고용한다.
- 학생은 참신한 교재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그 요구에 부응해준다.
- 청음(聽音)이나 선율 창작 등의 학습에 의해, 시창이나 악보의 일반적 지식을 얻게 한다.
- 감상지도에서 형식적 타성에 빠지지 않도록 유의하며, 항상 참신한 제재로서 교재를 제시하며, 해설서에 의존하지 말고, 교사의 음악에 대한 사고방식에 의거하여 지도한다.
- 기량이 뛰어난 학생들을 합주반으로 편성하여 화음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협동심을 기른다.

3. 音樂教師 再教育의 基本 方向



음악교사는 음악적 전문성에 있어서는 기술적 지도자가,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후원자 단체에 대해서는 인간적 지도자로서, 인격적으로는 교육적 지도자로서의 자세가 요구된다. 특히,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필요로 하는 심리적 안정감과 학습에 대한 동기 부여는 이러한 교사의 지도력에 크게 좌우됨은 물론이려니와, 교육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교사는 항상 연구하는 자세와 변화를 추구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한다.

정보화시대와 기계문명의 발달은 학급에 막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가져올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상상만할 수 있을 뿐이며, 현재 실행되고 있는 음악교육이 새로운 상황에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혹은 우리가 가르치는 내용과 방법을 바꾸어야 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계에서 미래의 음악교사들은 그들의 전문직을 지속시킬 수 있도록 대비하여 개인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힘을 키워야한다.

그렇다면 새로운 상황에 대비하여 현재의 음악교육이 바뀌어야 할 교수 내용과 교수법은 무엇인가에 대해 음악교사들도 당면하게 될 도전이 무엇일지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해볼 때이다. 교사교육 프로그램에서 학생이 마땅히 취해야 할 역할에 대해 「음악교사 교육저널」(Journal of Music Teacher Education)의 편집자인 아펠스타트는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²⁸⁾

첫째, 악기나 목소리를 가지고 음악적 아이디어를 표현할 수 있는 음악가 (musician)라야 한다.

둘째, 음악의 기초적인 이론, 역사적인 지식에 대해 알아야 하며 음악을 구하고 연주할 수 있는 학자(scholar)라야 한다.

셋째, 음악에 대한 관심과 능력이 다양한 사람들에게 음악적 리더십을 발휘하도록 언어, 혹은 비언어적 수단으로 음악적 아이디어를 전달할 수 있는 자질이 구비되어 있는 지도자(leader)라야 한다.

21세기는 학생들이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기능을 필요로 할 것이므로 새로운 상황에 대비하여 현재 실행되고 있는 교사교육의 목표에도 새로운 것이 더 첨가되어야 한다.

케이지는 “지식은 전수 받는 것이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다양한 경험을 통해 얻는 것으로, 학습의 경계를 없애고 학생의 관심이 여러 곳에 있도록 융통성이 있어야 하며, 가르치지 않고 스스로 알아내도록 빈자리를 마련해주어야 한다.” 고 했다.

급격하고도 과격하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미래에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학생은 부르너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배우는 법을 배우도록” 배운 사람일 것이다. 교육에서 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효과적이고 창조적으로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다. 미래의 학생들은 교사가 만들어낸 문제를 다루는 대신 현실에서 문제를 찾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개발하도록 해야 한다. 사람들은 학교교육이 실패한 가장 큰 이유는 결국, 교사교육이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한다.²⁹⁾

28) H. Apfelstadt(1996), "Keys to Successful Teacher Education," *Journal of Music Teacher Education* 5, pp. 4~5.

음악교사 교육을 위하여 교육과정이 근본적으로 변화해야하는 이유는, 음악교사 커리큘럼이 보다 융통성 있고, 결정적이며, 창조적인 음악교사를 양성하여 새 시대의 도전에 성공적이고 능력 있는 직업인으로 성장하도록 음악교육 커리큘럼을 재검토하여 새로운 방향으로 변화하는데 도움이 되어야한다.

음악교육자는 학교에 음악이 반드시 포함되어야하는 이유를 납득할 만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한다. 현대인은 음악의 가치는 이해하더라도 그것을 학교에서 가르쳐야한다고 생각하는 것에는 소홀할 수 있다. 오늘날에는 가정이나 사회적 환경에서 우연히 습득하는 지식의 양이 너무도 많기 때문이다.

전자매체는 음악학습에 강력한 가능성을 가지고 정확한 정보와 해답을 즉각적으로 제고하는 교수기기로 등장했다. 기계문명의 발달은 음악교육의 목표에 이르고 효율적으로 도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음악이 우리에게 생각하도록 요구하는 모든 것을 포함시키자면 학교에서 음악 커리큘럼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오늘날 당면하는 문제와 미래에 당면하게 될 문제에 폭넓은 책임을 질 수 있는 교사를 준비시키도록 교육과정 내용을 갱출 필요가 있다.

29) 안미자(1999), “21세기 음악교육 커리큘럼의 새로운 대안”, 이화여자대학교. p.3.

V. 結 論

음악교육은 음악이 인간에게 왜 중요하며,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한다는 분명한 이유에 대해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지금까지의 음악교육은 주로 연주에 중점을 둔 제한적인 교육이었다. 그러나 새로운 시대에 빠른 변화와 경쟁은 우리의 문화적 가치와 예술에 대한 개념, 그리고 이들과 사회와의 연관성에 대해 재조명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엄청난 정보와 기계문명의 시대에 살면서 사회과학의 일변도는 오히려 극도로 황폐화하고 삭막하게 만드는 측면이 있다.

새 시대를 사는 사람들은 인간이 정신적으로 충만한 삶을 무엇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 음악교육은 근본적인 인간 삶의 문제에 해답을 제시한다.

학생의 음악적 능력은 교사의 음악에 대한 가치관에 의해서 좌우된다. 이는 자신의 수업을 통해서 학생의 마음에 파고들어 교사의 의지나 가치관과 같은 미적 이념을 소유하게 되고, 이는 학생 자신의 인격형성과 음악에 대한 인식에 중요한 방향을 결정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교육의 실패는 결국 교사의 책임이며 누가 가르치느냐에 따라 교육은 달라진다. 미래의 젊은이들에게는 창의적이며 독창적인 것이 중요하며 이들에게 독창적으로 생각하게하고, 결정과 혁신의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교사의 임무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의 중등교원이란 개념상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망라하고 있으므로 해서 엄연히 구분되어야 할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음악교육과정이 획일화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해야 할 것이다.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엄연한 설립 목적과 교육 내용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중등교원이라는 명목으로 동일한 자격의 교원을 양성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³⁰⁾ 이는 점차 교육의 전문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으로 과정별 전문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전통적인 음악교사교육으로는 학생들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어, 미국의 저명한 음악교육학자인 B. 리머는 전통적인 교수법 중심 교사교육 프로

30) 남정걸(1997),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교육과학사.

그럼의 문제점을 네 분야로 제시하여 음악교육 전공 프로그램을 광범위하게 넓힐 것을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³¹⁾

① 음악교육자 자신의 철학적, 비판적 이해, ② 교육과정의 변화, ③ 현장교육의 효과에 대한 현상 관리, ④ 연구자로서의 음악교사 등, 네 가지 영역의 새로운 요구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다.

전통적인 교수법 과목은 주로 연주를 중점적으로 다루어왔으나, 21세기가 요구하는 학생을 배출하기 위해서는 음악교과 중심교육(Discipline-Based Music Education)으로 접근하는 것이다. 즉 학생들이 음악에 대해 사고하는 법을 배우고, 음악 속에서 사고하고, 음악과 함께 사고하고, 음악적 이유에 대해 사고하도록 개념적으로 접근하는 것이다. 이것은 학생들로 하여금 실제의 음악적 상황에서 연주자, 작곡자, 즉흥 연주자로서 음악을 만들어내는 것뿐만 아니라 미학자, 역사가, 비평가로서 독립적으로 전통적인 음악적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는 포괄적인 접근이다.

과학문명의 발전과 새로운 기계 상품으로 인해, 과거에 비해 현재는 가정이나 사회에서 훨씬 더 많은 음악을 접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미래에 더욱 확산될 것이며, 많은 사람들에게 음악의 가치가 이해된다고 해도 그것을 학교에서 가르쳐야 한다는 생각에 소홀할 수 있다. 학교는 가정에서 채워줄 수 없는 사회에서의 기능을 채워주는 곳으로 남아있어야 한다. 학교교육의 책임이 전적으로 교사에게 있음을 상기할 때 음악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포함시키자 하면 교사는 음악과 교육과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교과서를 따라가는 교육이 아닌 교육과정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학생 수준에 맞는 독창적인 교육과정 편성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하며, 끊임 없이 변하는 학생과 사회구조 속에서 지속적인 재교육의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교사들의 연구와 노력만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예술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정책적으로 지원할 때에만 가능한 일이며, 교육인적자원부는 지식의 교과들을 통한 삶의 세계 추구만으로는 인간교육이 완료될 수

31) 안미자(1999), 전거서, p.4.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한편, 음악교과가 예술교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예술체험 중심의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준비해야 하고, 교육의 내용과 방법에 관한 연구를 지원하며, 교사들을 지속적으로 재교육해야 한다.



參 考 文 獻

1. 한국문헌

〈단행본〉

김중환(2004), 「음악교육론」, 교육과학사.

김재춘 외 3명(2001), 「예비·현직교사를 위한 교육과정과 교육평가」, 교육과학사.

성경희(1986), 「음악교육」, 세광음악출판사.

송진범(2004), 「음악교육학」, 학문사.

이흥수(1990), 「음악 교육의 현대적 접근」, 세광음악출판사.

진영은 외 2명(2002), 「교육과정과 교육평가의 탐구」, 학지사.

유덕희(1993), 「세계음악교육사」, 학문사.

〈논 문〉

김명주(1984),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음악유형에 관한 조사연구”, 서울대학교 교육대학원.

안미자(1999), “21세기 음악교육 커리큘럼의 새로운 대안” 이화여자대학교.

유덕희(1985) “교육과정 운영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경희(1985), “한국과 미국의 중학교 음악교육 비교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이흥수,(1994), “21세기를 향한 음악 및 음악교육 정책” 「음악교육연구」 제13집, 한국음악교육학회.

석문주(1996), “2000년을 향한 미국의 음악교육개혁 : Goals2000”, 「음악교육연구」, 제15집, 한국음악교육학회.

성경희.황병훈(1986), “제5차 초·중학교 음악과 교육과정시안 연구개발”, 한국교육개발원.

성경희.권덕원 (1992). 제6차 교육과정 각론 개정 연구, 초·중·고등학교 음악과, 한국교육개발원.

- 성경희(1984), “2000년대의 학교음악교육의 방향”, 「교육과정 연구」, 제4집, 교육과정연구회.
- 성경희(1991). “교육의 본질 추구를 위한 음악교육 평가체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송진범(1977), “한국의 민족주의 사상이 음악교육에 미친 영향”,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교육대학원.
- 함수곤(2005), “국가수준 교육과정” 「교과서 연구」 제44호, 한국교과서연구재단.
- 허귀현(1985), “중학교음악교육과정과 음악교과서의 학습목표와의 비교 분석”, 供田武嘉津 (1985). 世界音樂教育史, 한국음악교재연구회역 세광음악출판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기타문헌>
- 음악과 제1차-제7차 교육과정안, 교육부.



<Abstract>

Problems in School Music Education Courses

Mi Ran Chung

Musical Education of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at Jeju University

Academic Advisor: Lee, Chun Ki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recognize the problems in school music education courses to introspect on the environment of the school music education, on what students, teachers, and textbooks can do, and on finding solutions of the appropriate way in which the music education must be developed for students in accordance with the changes of the times.

The education curriculum of Korea has maintained its centralized education curriculum of 'a unified education curriculum on the national level'. 'Textbooks' as a blueprint of school education, a perfect 'school education curriculum centered textbooks' has been maintained. In other words, the education was conducted not by the textbooks but the textbooks conducted the education. It was not possible for the teachers to perform their professionalism as education professionals in planning and operating education in text-focus education curriculum. Since the 6th education curriculum, a 'school education curriculum' in which the main body of school

education, the schools, directly organize and operate has become important.. In accordance with this decentralized education curriculum system, a phase of 'school education curriculum focused on the education curriculum' in which teaching is conducted by textbooks according to the education curriculum of school and not by teaching textbooks. In the 7th education curriculum, a participation of local offices of education has been added to the system of division of works among the ministry of education, offices of education, and schools to strengthen the schools' education curriculum organization and operation. However, much time and effort are needed for the teachers who have only been focusing on delivering knowledge in textbooks to acknowledge the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education curriculum appropriately to conduct professionalism. Unless problems such as reality of schools for entering prominent universities, conditions of school education, number of teachers and their professionalism, school culture evolving around administrative management, and distorted views of parents on education, it would take much time to domicile the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school education curriculum.

Today, the music education is in jeopardy of becoming only a formality by being taken away its peculiar role to the industrial sensualism and impromptu sensibility of mass media. The problems of today's music education are an emotional poverty due to the industrial development and scientism, a lack of artistic beauty, and a lack of artistic experiences. It is time to grope for a new transition of acknowledgement of the music education to establish a firm sense of values about the mental world and to systemize our emotions through school music education. If the music education has been limited to mostly playing musical instruments, the rapid changes and competition are requiring a retrace the relativity of our cultural values, concept of art, and the society.

A student's musical ability can be said to be affected by the teacher's values

on music to acquire teacher's ideology on beauty. This decides a important direction on acknowledgement about music and establishing his personality. In other words, the success of failure of education is a responsibility of teachers. And education varies according to who the teacher is. The creativity and originality are important for the future young adults. And it is the teacher's duty to build them the ability to think, decide and innovate originally. Compared to the past, people contact music more frequently in home or in the society today. This will be spread more in the future. The schools must remain as a place to fulfill the functions in a society of which homes can not. In consideration of teachers as solely being responsible for school education, teachers must understand music and music education curriculum accurately, lead the students in education curriculum and not follow the textbooks, and organize an original education curriculum to comprehend every item music requires. Also, in the social structure and continuously changing students, teachers must grasp opportunities for constant re-education. This is not possible merely through teachers' study and efforts. But the ministry of education must acknowledge the necessity of art. The textbooks must be prepared in which focus is on the art experience in regard to supporting the music textbooks to perform its role as an art textbook. And the reality that human education cannot be achieved only with pursuit of education by textbooks concentrating on knowledge must be acknowledged. A support for a long-term study about the content of education must be realized, and teachers must be re-educated constantly.

※ This research has been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thesis in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at Jeju University on August, 2006.

<부록 1> 교과용 도서 편찬 제도의 변천

구 분	주요 내용
제1차 교육과정기 (1954~196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과용 도서의종류 : 국정, 검정, 인정 ◦ 국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초등 : 정규 교과목 학생 및 교사용도서 -초등학교 외 각 학교의 문교부장관이 지정하는 교과목의 교과용 도서 ◦ 검정 : 초등학교를 제외한 각 학교의 국정으로 정하지 않은 교과용 도서 ◦ 국정교과용도서 편찬규정(1950. 4.29), 교과용도서검인정규정(1950. 4.29)
제2차 교육과정기 (1963~197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과용 도서의종류 : 국정, 검정, 인정 ◦ 국정도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초등 교과목의 학생교육용도서, 교사용도서 -중등 : 국어, 국민윤리, 국가이념반영과목, 실업에 관한 교과목 중 문교부장관이 정하는 교과서 ◦ 검정 신청자격 : 저작자 또는 출판사 ◦ 검정 합격 종수 : 제한없음(제2차 7종) ◦ 교과용도서 저작·검인정령(1967. 4.17)
제3차 교육과정기 (1973~198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과용 도서 종류 : 1종, 2종, 인정 ◦ 1종도서 :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과서 및 지도서, 실업계 고등학교 교과서 및 지도서, 인문계 고등학교 국어, 국민윤리, 국사, 사회교과서 ◦ 검정 신청자격 : 저작자로 제한 ◦ 2종도서 합격 종수 : 5종 ◦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1977. 8.22)
제4차 교육과정기 (1981~198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과용 도서 종류 : 1종, 2종, 인정 ◦ 2종도서 확대 : 중학교의 국어, 도덕, 국사, 사회과 외의 도서 및 고등학교 일부 도서의 2종화 ◦ 2종도서 출판업자 자격요건 강화 : 최근 3년간 5종→최근 3년간 10종 이상 발행 실적있는 출판사 ◦ 2종도서 유효기간 연장 : 5년에서 2년 범위 내 연장 가능토록 함
제5차 교육과정기 (1987~199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과용 도서의종류 : 1종, 2종, 인정 ◦ 고등학교 2종도서 합격종수 확대 : 5종→8종 이내
제6차 교육과정기 (1992~199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과용 도서의종류 : 1종, 2종, 인정 ◦ 중학교 2종도서 합격종수 확대 : 5종→8종 이내 ◦ 고등학교 2종도서 합격종수 폐지 ◦ 초등영어검정
제7차 교육과정기 (199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과용 도서의종류 : 국정, 검정, 인정 ◦ 중학교검정도서 합격종수 폐지 학년별, 연차별 검정 ◦ 검정도서 유효기간 폐지 ◦ 검정도서의 검정업무 :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공동주관

〈부록 2〉 7차 교육과정 내용체계

구분	중학교	고등학교	
	7, 8, 9 학년	10 학년	
이 해	리 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혼합 박자 • 여러 가지 장단 • 리듬 꼴의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러 유형의 박자 • 여러 가지 장단 • 리듬 꼴의 발전과 변화
	가 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계에 따른 가락의 구성 • 여러 가지 조 • 민요 음계 • 시김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계에 따른 가락의 구성과 여러 형태 • 여러 가지 음계 • 민요음계 • 시김새
	화 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러 성부의 어울림 • 여러 조의 주요 3화음 V₇화음 • 화음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부 조직 • 여러 조의 3화음, 7화음 • 화음 진행
	셈 여 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악곡의 흐름에 영향을 주는 셈여림의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악곡의 흐름에 영향을 주는 셈여림의 변화
	빠 르 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악곡의 흐름에 영향을 주는 빠르기의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악곡의 흐름에 영향을 주는 빠르기의 변화
	음 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러 가지 창법에 따른 목소리 • 여러 가지 주법에 따른 악기소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러 가지 창법에 따른 목소리와 음질의 변화 • 여러 가지 주법에 따른 악기 소리와 음질의 변화

구분	중학교	고등학교
	7, 8, 9 학년	10 학년
활동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른 자세, 호흡, 정확한 발음, 무리 없는 발성으로 부르기 · 듣고 부르기 · 음악의 요소를 이해하여 보고 부르기 · 악곡의 특징을 살려 창의적으로 부르기 · 악곡의 특징을 살려 외어 부르기 · 악곡의 특징을 이해하며 합창 지휘하기 · 다양한 시대와 문화권의 악곡을 부르기 · 노래를 듣고 일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른 자세, 호흡, 정확한 발음, 풍부한 발성으로 부르기 · 듣고 부르기 · 악곡의 특징을 이해하여 보고 부르기 · 악곡의 특징과 분위기를 살려 창의적으로 부르기 · 악곡의 특징과 분위기를 살려 외어 부르기 · 악곡의 특징과 분위기를 이해하여 합창 지휘하기 · 다양한 시대와 문화권의 악곡을 창의적으로 부르기 · 노래를 듣고 일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기
	악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른 자세, 주법, 좋은 음색으로 연주하기 · 음악의 요소를 이해하여 보고 연주하기 · 악곡의 특징을 살려 창의적으로 연주하기 · 악곡의 특징을 살려 외어 연주하기 · 악곡의 특징을 이해하여 합주 지휘하기 · 여러 유형으로 반주하기 · 다양한 시대와 문화권의 악곡을 연주하기 · 연주를 듣고 일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기

활	창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리듬과 가락을 즉흥적으로 표현하기 · 주제 변주하기 · 간단한 형식의 곡을 만들어 적기 · 악기와 목소리를 선택하여 표현하기 · 만든 곡을 듣고 일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악곡을 즉흥적으로 표현하기 · 여러 유형으로 변주하기 · 다양한 형식의 곡을 만들어 적기 · 악기와 목소리를 선택하여 창의적으로 표현하기 · 만든 곡을 듣고 기준에 따라 평가하기
	감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악곡의 성격과 구성요소와의 관계를 이해하여 듣기 · 다양한 시대와 문화권의 악곡의 형식을 이해하여 듣기 · 악곡의 특징에 어울리게 창의적으로 신체 표현하기 · 다양한 악기소리와 목소리의 조화를 이해하기 · 다양한 악곡의 연주형태와 악곡의 특징과의 관계를 이해하여 듣기 · 다양한 시대와 문화권의 음악을 듣기 · 생활에서의 음악의 역할과 가치를 이해하기 · 음악을 듣고 평가하기 · 바른 감상태도 가지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악곡의 성격과 구성요소와의 관계를 이해하여 듣기 · 다양한 시대와 문화권의 악곡의 형식을 이해하여 듣기 · 악곡의 특징과 분위기에 어울리게 창의적으로 신체 표현하기 · 다양한 악기소리와 목소리의 음질과 그 조화를 이해하기 · 다양한 악곡의 연주 형태와 악곡의 특징과 분위기의 관계를 이해하여 듣기 · 다양한 시대와 문화권의 음악을 듣기 · 생활에서의 음악의 역할과 가치를 이해하기 · 음악을 듣고 평가하기 · 바른 감상 태도 가지기

설문지

<부록 3>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조사는 「학교 음악과 교육과정 연구」라는 주제를 효과적으로 연구하기 위한 기초자료입니다. 본 설문조사는 ‘학생들의 음악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사실을 조사·분석’ 함으로써 보다 바람직한 음악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취지에서 실시하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 입니다.

학생 여러분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본 설문지의 조사결과는 연구 이외의 목적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2006년 3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전공 정미란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다음 설문 내용을 읽고 해당 사항에 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1)

※ _____ 중학교 _____ 학년 성별 ___ 남 ___ 여

1. 음악과목에 대한 선호도를 파악하는 내용입니다. 음악시간을 좋아합니까?
___ ① 좋아한다. ___ ② 그저 그렇다. ___ ③ 싫어한다.

2. 음악시간을 싫어하는 학생만 표 합니다. 싫어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___ ① 음악에 대한 기초 지식이 없어서
___ ② 변성기라서 노래 부르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___ ③ 대중음악보다 재미없어서
___ ④ 음악을 별로 접해보지 않아서
___ ⑤ 인생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3. 관심 있는 음악의 장르를 순서대로 표시하세요.

___ ① 고전음악 ___ ② 가곡 ___ ③ 국악 ___ ④ 가요 ___ ⑤ 팝송

4. 관심 갖고 공부해야 할 음악의 장르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___ ① 고전음악 ___ ② 가곡 ___ ③ 국악 ___ ④ 가요 ___ ⑤ 팝송
5. 초등학교 때 방과 후 교육활동으로 다루었던 악기는 무엇입니까?
 ___ ① 피아노 ___ ② 바이올린 ___ ③ 플룻 ___ ④ 첼로 ___ ⑤ 그 외
6. 방과 후 음악학원은 몇 학년까지 다녔습니까?
 ___ ① 4학년 ___ ② 5학년 ___ ③ 6학년 ___ ④ 중학교1학년 ___ ⑤ 그 외
7. 사회생활하며 취미로 다루고 싶은 악기는 무엇입니까? (악기이름을 쓰세요.)
 _____ ① 현악기 _____ ② 목관악기 _____ ③ 금관악기
 _____ ④ 타악기 _____ ⑤ 국악기
8. 수업시간에 가장 흥미 있는 단원은 무엇입니까?
 ___ ① 가창 ___ ② 기악 ___ ③ 감상 ___ ④ 합주
 ___ ⑤ 합창 ___ ⑥ 창작
9. 1년에 음악회장에 가는 횟수는 몇 번 정도입니까?
 ___ ① 1회 ___ ② 2회 ___ ③ 3회 ___ ④ 수시 ___ ⑤ 없다
10. 음악이 인성교육면에서 가장영향을 주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___ ① 협동심을 기를 수 있다. ___ ② 생활에 여유로움을 가질 수 있다.
 ___ ③ 성취감을 느낄 수 있다. ___ ④ 자신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다.
 ___ ⑤ 창의성을 기를 수 있다.
11. 음악공부를 하고자 하는데 방해되는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___ ① 악기구입이 비싸다. ___ ② 배울 시간이 없다.
 ___ ③ 연습공간이 없다. ___ ④ 레슨비가 비싸다.
 ___ ⑤ 부모님이 반대한다.
12. 방과 후 교육활동으로 음악을 지도한다면, 어느 곳에서 관리·지도하면
 합리적이겠습니까?
 ___ ① 학교 ___ ② 동사무소 ___ ③ 마을회관
 ___ ④ 민간단체 ___ ⑤ 그 외

13. 부모님은 자녀의 음악교육에 대한 관심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 합니까?
___ ① 관심이 많다. ___ ② 필요성을 알고 있다. ___ ③ 보통이다
___ ④ 전혀 관심이 없다. ___ ⑤ 그 외
14. 가정에서 음악을 가장 많이 접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___ ① TV ___ ② 오디오 ___ ③ MP3 ___ ④ 컴퓨터 ___ ⑤ 그 외
15. 음악교과 지도 선생님께서 건의하고 싶은 이야기를 써주세요.

